

06+07

예술과 만남

2017 JUNE + JULY | VOL. 126
GYEONGGI ARTS CENTER MAGAZINE



06+07

2017 JUNE + JULY | VOL. 126
GYEONGGI ARTS CENTER MAGAZINE

CONTENTS

Focus

- 06 **Focus Image**
작곡가 윤이상
- 08 **Focus Column**
시대를 비껴간 이상주의자,
윤이상
- 12 **Focus Interview**
경기도립극단
<윤이상; 상처 입은 용>
양정웅 예술감독
이대웅 연출
이오진 작가



06

Stage

- 18 **주목, 이 공연 I**
존재의 본질과 근원을 묻다
<태권무무 달하> 탄생 10주년
기념공연
- 22 **주목, 이 공연 II**
동화 속 비운의 소녀들,
공주와 신데렐라의 만남
<콩데렐라>
- 24 **주목, 이 공연 III**
행운을 전하는 천상의 소리
<성시연의 브루크너 7번>
- 26 **주목, 이 공연 IV**
영웅이 남긴 한 발의 총알
뮤지컬 <영웅>
- 30 **과감하게 골라보기**
6, 7월 공연
- 32 **다시 짚고 넘어갈 순간 I**
시대를 앞서는
아시아 음악의 스펙트럼
<ASIA SONG FESTIVAL>
- 34 **다시 짚고 넘어갈 순간 II**
명장의 손끝에서
온전히 완성된 감동
<무티 베르디 콘서트>
- 36 **다시 짚고 넘어갈 순간 III**
감동의 도가니를 선물한 3인의 원정대
<2017 경기실내악축제>

Interview

- 40 **GGAC가 만난 사람 I**
상처 입은 용, 다시 날아오르다
경기도립극단
이찬우, 장정선, 윤성봉 단원
- 44 **GGAC가 만난 사람 II**
청년 안중근에게 묻는다
뮤지컬 <영웅> 주연 이지훈
- 48 **예술가의 방**
경쾌한 리듬을 두드려라,
그러면 마음이 열릴 것이다
경기필하모닉 타악 파트
- 52 **타인의 취향**
공연과 공감하는 법
전당과 교감하는 법
아트플러스 10년째 회원 전영희 씨

44



Story



- 56 **예술, 수작을 걸다 I**
대한민국 블랙리스트의 조상 :
윤이상
- 58 **예술, 수작을 걸다 II**
해외에서 명성을 얻고 있는
우리의 작곡가들
- 62 **예술과 인문학**
넌버벌 퍼포먼스 발전과
<달하>의 '태권무'
무대화 결실
- 66 **예술, 즐기기**
열린 우체통

Talk

- 67 **예술, 더하기**
- 68 **GGAC News**
- 70 **공연 캘린더**

Editor's Letter

봄 햇살을 만끽할 겨를도 없이
익은 질게 푸르르고,
마음도 이내 여름으로 치달아 있습니다.
분주한 일상과 숨 가쁜 호흡 속에
몇몇이 머리를 맞대니
어느새 한 권의 책이 만들어졌습니다.
훌륭한 업적에 비해
잘 알려지지 않았던 '작곡가 윤이상'을
인물 중심으로 조명한
경기도립극단 연극을 비롯해,
전당과 도립예술단의 다양한 기획공연들을
소개하고 연주자와 배우 등 아티스트와
연출진 그리고 전당을 사랑하는
일반인까지 진솔한 인터뷰를 담았습니다.
쫓불의 희망으로 들어선 새 정부가
'사이다행보'로 국민의 마음을
뚫어주는 요즘입니다.
격월간 <예술과 만남>도 독자 곁에서
신바람 난 일상에 활기를 더하겠습니다.

발행인 정재훈
편집인 정재훈
편집장 임선미
기획·취재·편집 조명아
편집위원 신혜원
안성현
박혜은
조아라

발행처 재단법인 경기도문화의전당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307번길 20

전화 031-230-3245

팩스 031-230-3275

이메일 magazine@ggac.or.kr

디자인·제작 디자인매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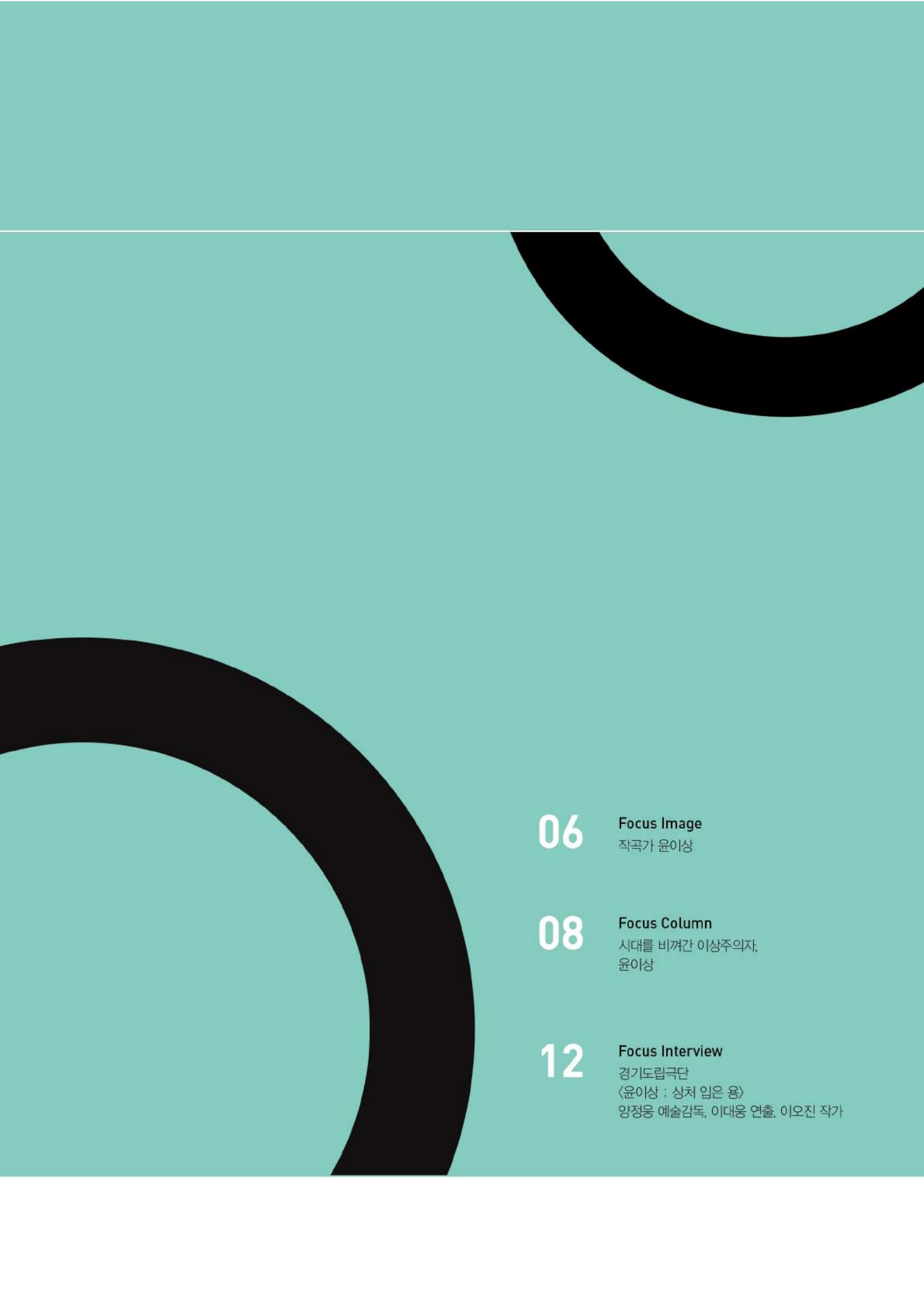
F

O

U

S P E C I A L
T H E M A

S



06

Focus Image

작곡가 윤이상

08

Focus Column

시대를 비껴간 이상주의자,
윤이상

12

Focus Interview

경기도립극단
〈윤이상 : 상처 입은 용〉
양정웅 예술감독, 이대웅 연출, 이오진 작가

작곡가는
좋은 것을 많이
생각해낼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소용이
없습니다.

윤이상 尹伊桑; 상처 입은 용





오직 음표를 통해서만, 비록 아주 미비한 것일지라도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작곡가의 영혼이, 생각이,
의식이, 아름다움이-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평화와 조화까지도.
이게 나의 마지막이자 최고의 목표입니다.
영원한 평화 속에서 인간에 가까워지고, 세계가 조화롭게 사는 것입니다.

나는 계속 살고 싶고, 그리고 계속 일하고 싶습니다.
나의 나라를 위해서, 더 작곡하고 싶습니다.
내가 아주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는, 내가 어린 시절을 보낸 나의 문화와
나의 전통이 있는 그곳에 묻히고 싶습니다.





시대를 비껴간 이상주의자, 윤이상

윤이상 선생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경기도립극단이 윤이상 선생을 소재로 한 작품을 무대에 올린다. 이번 공연은 음악가로서도 하나의 인간으로서도 멀게만 느껴졌던 윤이상에게 조금 더 솔직하고 내밀하게 다가가기 위한 시도이자 윤이상이라는 인물을 통해 개인의 이상과 사회적 요구 사이의 관계를 되돌아보는 기회가 될 것이다.

글 이단비 드라마트루기

윤이상은 독일의 저명한 산문작가 루이제 린저Luise Rinser와의 대담에서 자신의 태몽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동양에서는 아이를 가진 여자가 용꿈을 꾸면 태어날 아이가 특별한 운명을 타고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가졌을 때 용꿈을 꾸셨는데 그게 완벽하게 좋은 꿈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내가 일곱 살인가 여덟 살 때 어머니가 말씀해 주신 이야기에 따르면 꿈에 커다란 용을 보셨답니다. 용은 내가 태어난 산청군 정면에 있는 지리산 상공을 휘돌고 있었대요. 그 산은 우리들에게 신비하고 성스러운 산입니다. 용은 그 산 위의 구름 속으로 들어가더니 날가는 했지만 하늘까지 높이 높이 차고 오르지는 못했답니다. 용이 상처를 입고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어머니는 그 꿈을 꾸고 놀라셨답니다. 왜냐하면 그 꿈이 나에게 대단히 심각하고 중대한 운명을 예언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윤이상, 루이제 린저 《윤이상, 상처 입은 용》, 윤이상평화재단 옮김, 서울: 랜덤하우스중앙, 2005, 17면

윤이상의 삶을 돌이켜볼 때 이 꿈은 실로 앞으로 펼쳐질 그의 운명을 예견하고 있었다. 이상伊桑이라는 본명에는 특이하게 ‘뽕나무 상’이 쓰이는데, 윤이상의 말을 인용하자면 이 이름은 ‘뽕나무 위 아니면 아래, 또는 옆의 지도자를 뜻’하는 것이다. 윤이상의 인생이 그러했다. 그의 삶은 한국의 근·현대사를 관통하면서 굼직한 역사적 사건의 아래에서, 그 옆에서, 간혹 그 뒤에서 동시에 그 한가운데에 존재하고 있었다. 윤이상은 날아오르는 용처럼 이상을 꿈꾸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 용이 하늘 높은 곳에 차고 오르지 못했듯이 한 개인으로서 그의 삶은 굴곡진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적지 않은 상처를 입었다.

우리 전통소리와 서양음악의 결합으로 탄생한 천재

윤이상은 1917년 9월 17일 경남 통영에서 태어났다. 통영은 바다로 둘러싸인 지리적 조건으로 인해, 정치적, 군사적 상업적 요충지이면서도 문화적인 교차지점이었다. 그가 기억하는 어린 시절의 통영은 유랑극단들의 공연, 통영 오광대놀이, 무당의 굿 소리 등과 같은 전통적인 소리로 가득한 곳이었다. 또한 통영공립보통학교에 입학하면서 신문을 체험하게 되는데, 학교에서 배운 유럽의 노래와 집 근처의 교회에서 불리던 찬송가는 그가 유년시절에 경험하게 된 서양 음악이었다. 말하자면 고향에서 듣고 자란 소리들이 그에게 음악적 원천을 제공한 것이다.

그의 삶은 1956년 파리 음악원으로 유학을 떠나면서, 보다 본격적인 서양 음악과의 조우를 통해 전환기를 맞게 된다. 파리에서의 공부에 만족하지 못한 윤이상은 독일로 건너가서 베를린 음악대학에 입학해 작곡 공부를 본격화한다. 라인하르트 슈바르츠 실링Reinhard Schwarz-Schilling에게서 음악 이론을, 아르놀트 쇤베르크Arnold Schönberg의 제자인 요제프 루퍼Joseph Rufer에게서 12음 기법을, 그리고 보리스 블라허Boris Blacher에게서 작곡을 배웠다. 그러던 중, 북한에 있는 강서고분의 <사신도>를 보기 위해 방북하고 이를 이유로 동베를린 간첩단 사건에 연루된다. 이 사건을 계기로 윤이상은 1967년에 서울로 납치되고, 부인과 함께 기소된다. 1심에서는 무기 징역을 선고받고, 제2심에서는 15년 형을, 제3심에서는 10년 형으로 감형된다. 그러나 161명에 달하는 세계적 예술가와 동료들의 탄원과 독일 정부의 항의 및 노력에 힘입어 윤이상은 풀려난다.

그 이후로 윤이상이 한국의 현대사와 맺게 되는 정치적 상징성은 본격화된다. 그는 김대중의 석방 운동을 벌였고, 도쿄에서 한국 민주민족통일해외연합을 창립하며 유럽 본부의 의장을 맡는다. 더 나아가 광주 민주화 운동을 보고 <광주여 영원하라>라는 대관현악곡을 작곡, 이는 북한에서 공연된다. 이후에 윤이상은 남북 합동 음악제를 제안하고, 범민족 통일 음악회도

평양 28 문화회관에서 열게 된다. 하지만 1994년 남쪽의 몇몇 뜻있는 분들이 윤이상 음악제를 추진하게 되고 그는 방한을 위해 김영삼 대통령에게 명예회복을 요청하는 서신을 보내지만, 전향을 밝히라는 이홍구 국무총리의 답신에 분개해 방한이 무산된다. 결국 고향 땅을 밟을 수 없게 된 상황에서, 윤이상은 1994년 12월 하순에 마지막으로 고향 바다를 보기 위해 일본으로 가서 대한해협을 건너 고향 바다에 대한 그리움을 달랜다. 고향 땅을 끝내 밟아보지 못한 채, 20세기의 중요한 작곡가로 세상에 그 이름을 떨치던 윤이상은 1995년 베를린의 한 병원에서 78세의 나이로 이 세상을 하직한다.

음악가이자 한 인간으로서의 윤이상을 이야기하는 작품

이처럼 윤이상의 삶은 그 어머니의 태몽대로 '상처 입은 웅'과 같았다. 그는 일제강점기, 한국전쟁의 풍파를 겪었고 남한과 북한, 동양과 서양이라는 두 세계에서 제대로 수용된 적 없이 그 경계에서 이상적인 세계를 꿈꿨으며 이를 음악에 녹여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윤이상은 하나의 음악가로서 동양과 서양을, 전통과 현대를 결합한 선구자적 인물인 동시에 남과 북이라는 분단의 정치적 희생자였고, 마지막으로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표류하는 경계인이자 영원한 이방인이었다.

그러나 재미난 것은, 윤이상의 삶이 담보하고 있는 정치성에 비해 한 개인으로서 그가 추구한 것은 단순한 정치성을 넘어서 있다는 점이다. 어쩌면 윤이상에게 덧입혀져 있는 정치성을 한 꺼풀 벗겨내면, 그 이면에 숨어 있는 괴짜 음악가이자 하나의 이상주의자였던 인간 윤이상에게 가까워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 착안해서 연출가 이대웅은 윤이상을 독특한 시선으로 바라본다. 그는 윤이상을 생각하면 영화 <포레스트 검프Forrest Gump, 1994>가 떠오른다고 한다. 미국의 굵직한 역사적 사건의 한가운데를 관통하고 있는 포레스트 검프와 윤이상의 삶의 흐름이 같다는 것이다. 다만 하나의 중요한 차이를 찾자면, 윤이상은 시대적 사건의 핵심에서 살짝 비껴가



있다는 점이다. 한 예로, 윤이상이 북한을 방문한 것은 정치적 의도보다는 그에게 큰 예술적 영감을 주었던 <사신도>를 직접 보기 위한 것이었고, 동베를린을 방문한 것 역시 친구의 안부를 확인하기 위한 개인적인 행위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서로 얹히면서, 인생 최대의 위기이자 그를 죽음의 문턱까지 몰고 간 동베를린 사건이 됐고 이로써 윤이상은 정치적 쟁점의 한가운데에 놓이게 된다. 다시 말해, 그가 취했던 행동들은 사회적 도발로 간주됐지만 애초 의도에는 정치성이 유보돼 있었다.

삶의 흐름에서 맞닥뜨린 가장 큰 시련의 순간에도, 언제나 윤이상의 곁을 지킨 것은 음악이었다. 칼바람이 에이는 감옥 속에서 그는 얼어붙은 손을 입김으로 녹여가며 <나비의 미망인>이라는 오페라를 작곡했고, 북한에서 <사신도>를 본 경험은 하나의 영감이 돼 <이마주(영상)>라는 작품으로 탄생했다. 다시 말해 윤이상의 예술 속에는 인간적인 고통과 고난이 함께 존재하고 있으며 그 부당함을 그는 음악으로 표현했다. 그러나 음악 속에 있는 고통은 초월적 지점을 향해 있다. 그는 “작곡가는 좋은 생각을 정말로 많이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자체로는 소용이 없다. 오직, 음표들을 통해서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 속에 작곡가의 영혼, 생각, 아름다움이, 평화, 조화가 깃들여 있다. 그게 내 마지막이자 궁극적인 목표이다. 영원한 평화 속에서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이 세상을 조화롭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윤이상을 사회·정치적 맥락과 떼어놓고 보는 것 역시 너무 순진한 생각일 수 있다. 하지만 그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이번 공연이 윤이상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나 평가를 내리려는 것은 아니다. 이번 공연은 음악가로서도 하나의 인간으로서도 멀게만 느껴졌던 윤이상에게 조금 더 솔직하고 내밀하게 다가가기 위한 시도가 될 것이다. 그에 대한 평가는 관객 개인의 몫으로 남겨둔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의 서사성은 이 공연의 커다란 줄기를 형성하지만 단순히 자전적인 일대기를 따르지는 않는다. 루이제 린저와의 인터뷰 속 대담을 펼쳐는 윤이상이라는 화자를 중심으로 6, 17, 21, 29, 35, 47세 그리고 50세의 윤이상들이 각기 삶의 중요한 순간들을 재현한다. 그 순간의 파편들이 날실과 씨실처럼 얹히면서 어느새 윤이상의 삶이 하나의 퍼즐처럼 무대 위에 펼쳐진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그의 또 다른 자아를 대변하는 첼로가 등장한다. 윤이상과 첼로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그의 지난날의 추억, 고통, 사랑,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음악적 이상을 무대 위에서 만나게 된다. 첼로의 선율은 그의 음악인 동시에 삶의 희로애락을 담고 있다. 하나의 경계인으로서, 이방인으로서, 그의 삶 역시 분단된 조국의 현실처럼 끊임없이 사회의 벽과 분리를 겪어왔다. 그가 평생 겪어온 이러한 분리는, 그가 음악적으로 계속해서 화합과 평화를 추구한 동력이 됐을지도 모른다. 정치·사회적으로 커다란 변혁을 맞이하고 있는 2017년 지금, 이 공연은 윤이상이라는 인물을 통해 개인의 이상과 사회적 요구 사이의 관계를 되돌아보는 기회가 될 것이다.

윤이상 ; 상처 입은 용

일시 7/7, 8, 9

장소 경기도문화의전당 소극장

가격 2만원

출연 경기도립극단

관람연령 중학생 이상

경기도립극단

〈윤이상 ; 상처 입은 용〉

양정웅 예술감독 · 이대웅 연출 · 이오진 작가

경기도립극단의 첫 번째 인물 시리즈 〈윤이상 ; 상처 입은 용〉이 오는 7월 관객을 찾는다. 그간 한 번도 극화(劇化)되지 않았던 윤이상 선생은, 지금 대학로에서 가장 주목받는 이대웅 연출과 이오진 작가에 의해 무대 위 캐릭터로 재탄생된다. 총 예술감독은 평창올림픽 개·폐회식을 연출하는 양정웅 감독이 맡았다. 윤이상 선생을 무대로 올리기 위한 과정이 여간 녹록지 않다고 털어놓는 세 사람의 눈빛과 말투에서 치열한 고민의 흔적이 역력했다.

윤이상 선생 탄생 100주년을 맞아 기획한 작품에 함께하게 됐습니다.

소감이 어떠신지요?

이대웅 윤이상 선생이 공연계에서는 많이 주목하지 않았던 인물이라는 점에서 유의미했습니다. 첫 시도라는 의미가 큼니다. 음악가인 이분의 인생을 통해서 어떤 것을 마주하고 감각할 수 있을까 하는 설렘이 가장 컸습니다.

이오진 저 역시 윤이상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동안 생각해보지 않았던 인간형에 대해 접근해볼 기회라 많은 공부가 됐습니다.

양정웅 경기도립극단과 젊은 연출가, 작가의 만남에서 어떤 시너지가 발생할지 기대가 큼니다. 새로운 시류에 맞춘 신선한 작품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을 필두로 윤이상 선생에 대한 감론을박이 생겨나고 선생을 다룬 작품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예술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대웅 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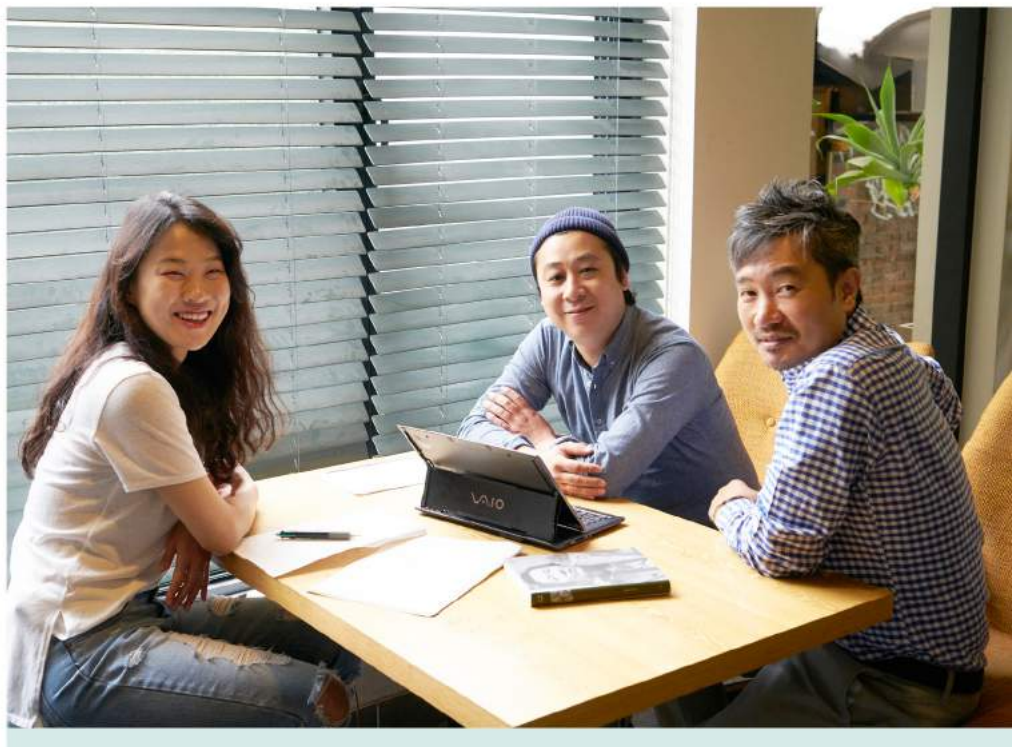
이오진 작가

양정웅 예술감독

양정웅 예술감독은 극단 여행자의 대표로 감각적인 미장센과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데 가장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셰익스피어 전문가라 불리며, 그의 작품 〈한여름 밤의 꿈〉은 한국 연극 최초로 영국에서 초청 공연을 하기도 했다.

이대웅 연출은 극단 여행자 소속 연출가이자 프로젝트 만물상의 멤버다. 〈보물섬〉, 〈더 정글북〉 등을 연출했으며 소설을 무대 위로 옮겨오는 데 일가견이 있다.

이오진 작가는 〈가족오락관〉으로 2009년 대산대학문학상 희곡부문을 수상하며 등단했다. 자신의 경험담을 바탕으로 쓴 〈바람직한 청소년〉으로 많은 주목을 받은 작가이다.



〈윤이상 ; 상처 입은 용〉은 어떤 작품인가요?

이오진 윤이상 선생은 정확히 정의된 바가 없고 상반된 평가가 오가는 인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이상 선생이 어떤 사람인지를 추적해나가고자 합니다. 1967년 동백림(동베를린) 사건을 중심으로 왜 이 사람이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추적하는 과정에서 1917년부터 1995년 사이의 한국 근현대사를 한 인물이 어떻게 훑고 있는가를 드라마로 재편한 작품입니다. 윤이상 선생의 전기를 병렬로 구성하기보다는 이 사람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중요한 순간들을 깊이 있게 다룹니다.

이대웅 연극 타이틀인 '상처 입은 용'은 윤이상 선생의 태몽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선생 그 자체이기도 합니다. 한 예술가이자 한국인, 경계인, 남편, 아버지, 남자로서 일제 강점기, 해방, 전쟁, 분단을 겪으며 상처 입은 용의 삶을 살았습시다. 이는 우리 역사와도 많이 닮아있죠.

윤이상이라는 사람의 여러 층위를 비춰 보면서 20세기 근현대사를 훑어보고 이를 통해서 21세기를 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만들고 싶습니다.

한국인들에게 윤이상은 여전히 멀고 낯선 인물입니다. 선생을 다루는 데 어려움은 없었나요?

이대웅 사실 그 점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선생의 족적에 남겨진 팩트(사실)와 유가족들이 바라는 이미지와의 간극, 그리고 오랜 기간 좌우 이념 논쟁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라는 점 등 여러 부분에서 접근하는 게 겁이 났습니다. 특히 다큐멘터리가 아닌 팩션이라는 장르에 맞춰 극으로 확장해야 하는 내용과 굳이 다루지 않아도 되는 내용을 구분해서 선별하는데 고충이 있었죠. 더욱이 조사해야 할 자료는 많고 광범위한데, 그에 비해 참고할만한 자료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세계적인 음악가라고 하는데 이분이

음악이 실제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알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음악가들 사이에서도 '곡이 어렵다', '연주자들이 소화하기 어려운 곡을 썼다'란 정보가 전부였죠.

그렇다면 이번 작품에서는 윤이상 선생을 어떻게 표현할 생각이신가요?

이대웅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이상 선생은 베일에 가려진 인물이에요. 저희는 인물 윤이상, 사람 윤이상에 대해 표현하고자 합니다. 객관적인 시선에서 봤을 때의 '인물' 윤이상과 가슴으로 느끼고 싶은 친화적인 감정으로 바라봤을 때의 '사람' 윤이상을 절묘하게 섞는 거죠. 관객이 너무 어렵게 느끼지 않도록 단순화하는 게 과제인 것 같습니다.

이오진 대중적인 이미지가 없는 윤이상 선생을 저희가 표현함에 따라 오해나 곡해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인물을 정의하는 데 많은 고민이 있었습

니다. 관객에게 이렇게 봐 달라 강요하기보다는 '윤이상은 어떤 사람이었을까'하고 관객들이 자기 안에서 상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낸 결론은 관객들이 작품을 보고 나서 윤이상이라는 사람의 음악을 찾아 들어볼 수 있게 만들자는 것이었어요. 윤이상 선생이 근현대사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포괄한 중요한 인물이고 또 매력적인 인물인지를 생각하게 되는 트리거 포인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대 위에서 윤이상의 매력을 기갈나게 표현해보겠습니다.

특별히 공들이는 연출이 있나요?

이대웅 관객들이 이미지적으로 강렬한 인상을 받아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윤택 감독이 연출한 뮤지컬 <이순신> 중에 통영 앞바다에서 출정식을 하는 장면이 있어요. 전쟁을 앞두고 비장감이 넘치는 상황을 역설적으로 전어 떼의 출몰로 인해 은빛 바다가 펼쳐지는 장관을 통해 아름답게 묘사를 하죠. 그 장면에서 관객들은 우리 땅에서



왜군을 몰아내겠다는 백성들의 의지를 느낍니다. 이처럼 직접 눈에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이면의 이미지들이 관객에게 맞닿아서 생각을 더욱 증폭시킬 방법을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음악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음악은 어떻게 등장하나요?

이오진 '첼로가 윤이상이고, 윤이상이 곧 첼로다'를 기본으로 인물이 순간순간 느끼는 감정을 첼로가 대신 표현하는 작품의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첼로가 그저 메타포로만 그치지 않는 거죠. 실제 윤이상 선생의 삶을 보면 첼로가 매우 깊게 닿아있습니다. 윤이상 선생의 작품 중에 <첼로 협주곡>이라는 곡이 있는데 오케스트라의 협연에서 첼로만 함께 어울리지 못해요. 한국과 북한, 독일 어느 곳에서도 온전할 수 없었던 경계인인 자신을 투영한 것이죠.

이대웅 실제 공연에서 선생의 음악을 다룬다는 자체가 부담입니다. 현대음악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는 선생의 음악이 어렵게 들릴 수 있다 보니, 선생의 작품에서 받은 영감을 바탕으로 음악 감독이 새로 작곡을 할 계획입니다. 어느 포인트에서 윤이상 선생의 음악과 만나게 할지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작품을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이대웅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질문하고 싶어요. 급변하는 시대의 중심에서 윤이상 선생이 예술가이자 경계인으로서 자기 고독과 어떻게 싸웠는지, 가장으로서 자신의

가정은 어떻게 지켜냈는지를 보며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고민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고향을 그리워하다 일본에서 배를 타고 지나가면서 멀리서 겨우 고국의 땅을 봤을 윤이상 선생의 심정을 통해 이 땅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살아가며 감각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 생각해볼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오진 윤이상이라는 사람이 나와 어딘가 하나 닿아있는 역사적 인물이라는 느낌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역사와 개인이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공연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양정웅 연극은 영화나 드라마처럼 불특정의 많은 관객이 찾는 장르가 아닙니다. 이 작품을 보시러 오는 관객이라면 윤이상 선생에 관심이 있거나 자기의 삶을 새롭게 바라보려는 분일 겁니다. 살아가는 이유와 정체성에 대해 고민을 하는 한 예술가의 삶을 보면서, 공감도 하고 자신도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S

T

O N T H E
 V I E W

18

주목, 이 공연 I

존재의 본질과 근원을 묻다
 〈태권무무 달하〉 탄생 10주년 기념공연

주목, 이 공연 II

동화 속 비운의 소녀들,
 공주와 신데렐라의 만남
 〈콩데렐라〉

주목, 이 공연 III

행운을 전하는 천상의 소리
 〈성시연의 브루크너 7번〉

주목, 이 공연 IV

영웅이 남긴 한 발의 총알
 뮤지컬 〈영웅〉

30

과감하게 골라보기

6, 7월 공연

A

G

E

32

다시 짚고 넘어갈 순간 I

시대를 앞서는
아시아 음악의 스펙트럼
<ASIA SONG FESTIVAL>

다시 짚고 넘어갈 순간 II

명장의 손끝에서
온전히 완성된 감동
<무티 베르디 콘서트>

다시 짚고 넘어갈 순간 III

감동의 도가니를 선물한
3인의 원정대
<2017 경기실내악축제>

PREVIEW

존재의 본질과 근원을 묻다

〈태권무무 달하〉 탄생 10주년 기념공연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누구나 살아가면서 한 번쯤 자신의 존재에 대한 질문을 가진다.

〈태권무무 달하〉는 살아 숨 쉬고 움직이는 모든 존재의 근원에 대한 고민을 무용수들의 몸짓으로 승화한다.

특히 10주년을 기념하여 마련된 이번 공연에서는 캐스팅부터 안무까지

한층 새로워진 모습으로 관객들을 찾는다.





보다 새로운 무예와 무용의 아름다운 결합

2008년 초연된 이후 국립극장, 세종문화회관, 성남아트센터 등 국내 주요 공연장은 물론, 일본(2010), 캐나다(2011), 호주(2012), 미국(2012), 중국(2012) 등 세계무대를 누비며 저력을 과시해 온 <태권무무 달하>. 경기도립무용단의 <태권무무 달하>가 탄생 10주년을 맞이해 경기도문화의전당에서 기념 공연을 연다. 한국의 전통유산 태권도와 년버벌 퍼포먼스 마살아츠의 예술적 승화가 아름답게 펼쳐질 예정이다. 경기도립무용단은 무무武舞라는 단어를 통해 무예의 역동성과 무용의 아름다움을 동시에 표현하고자 하는 야심찬 의지를 천명했다.

또 전반적인 배역을 새롭게 캐스팅해 새로운 무용수들의 에너지와 표현력을 심분 활용하는 것은 물론 태권도 품새와 무용을 보다 밀접하게 결합해 안무를 발전시키는 등 10주년이라는 타이틀에 걸맞은 참신한 변화를 꾀했다.

**모든 존재를 향해
던지는 묵직한 메시지**

'태초'라는 단어는 우리를 본질과 근원으로 끌어들인다. 이 세상의 시작. 실존적 존재들이 미처 생겨나지 못했던 원형 그대로의 우주. 태초란 그렇게 우리와는 멀고도 먼 옛날의 일과 같다. 그러나 우리는 태초에서 비롯됐다. 태초를 꼭 빼닮은 모태에서 우리는 나고 자랐다. 그뿐 아니다. 우리의 존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인류 역사의 시발점에 부정할 수 없이 태초가 있다. 태초는 우리의, 나의 본질과 근원이다.

여기, 태초에서 비롯된 우리의 존재를 찬찬히 짚어내는 몸짓이 있다. 경기도립무용단의 <태권무무 달하>는 세상이 열릴 때부터 수호신의 강림, 생명의 태동, 인류의 등장까지의 서사를 역동적으로 풀어낸다. <태권무무 달하>는 인류를 포함한 모든 생명 존재의 근원이 하나임을 전제로 한다. 하나의 태초에서 파생된 무수한 존재들을 향한 근원적 질문. 경기도립무용단은 그 질문을 관객들에게도 던지고자 한다. 화해와 평화. <태권무무 달하>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이다.

<태권무무 달하> 탄생 10주년 기념공연

일시 6월 16일(금) 오후 8시

6월 17일(토) 오후 4시

장소 경기도문화의전당 대극장

출연 경기도립무용단

가격 R석 4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관람연령 만 5세 이상

문의 031-230-3440~2



흥미롭게도 이 신화적이고도 아름다운 이야기를 풀어내는 방식은 무예(武藝)이다. <태권무무 달하>는 전투적인 무예와 서정적인 무용을 하나의 몸짓에 담고자 했다. 인정할 수 없는 '다름'을 극복하는 방식을 근원과 본질에 눈을 돌리는 데에 두었던 <태권무무 달하>의 주제의식을 생각한다면 놀라울 것도 아니다. 무예든, 무용이든 인간의 몸으로서 표현하고 표출함에는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그 간극을 예술적 에너지로 승화하는 과정을 지켜보는 경이로움과 환희는 이제 관객들의 몫이다.



동화 속 비운의 소녀들, 콩쥐와 신데렐라의 만남

〈콩데렐라〉

반전 있는 그녀들의 반전 있는 무대, 〈콩데렐라〉가 온다.

계모와 새언니들에게 구박과 차별을 받아오던 두 소녀 '콩쥐'와 '신데렐라'가 의기투합했다.

게다가 용감무쌍하게도 객석을 싹 없애버리고 관객들을 모두 무대 위에 앉혀놓겠다고 한다.

두 소녀의 국악극 도전기가 지금부터 시작된다.





콩데렐라

일시 7월 15일(토) 오후 2시 · 5시

장소 경기도문화의전당 대극장

가격 전석 3만원

출연 경기도립국악단

관람연령 만 5세 이상

문의 031-230-3440~2

계모와 언니들에게 구박을 받은 신데렐라, 차별과 부당한 노동 착취의 대명사 공쥐. 이 두 소녀의 이야기는 시대와 공간적 거리가 무색하게도 닮아있다. 광포설화(廣布說話) 동일 유형의 민담이 전 세계에 퍼져있는 것을 일컫는 말)의 전형적 사례로 거론되는 <신데렐라>와 <공쥐팔쥐>는 그 모티브와 전개에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어머니의 부재와 신분 상승의 구조이다. 신데렐라와 공쥐는 어머니의 결핍으로 인해 채워질 수 없는 그리움과 외로움을 갖고 있다. 그리고 반대급부로 마녀 캐릭터 같은 계모가 등장해 친어머니가 결핍된 두 소녀의 소외감과 자괴감을 극대화한다. 그러나 이러한 유형의 민담이 빛을 발하는 것은 마침내 높은 지위의 남성을 차지하고 마는 승리형 스토리 때문이다. 이 두 가지 구성은 <신데렐라>와 <공쥐팔쥐>의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이기도 하지만, 현대사회에 이르러서는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기도 한다. 재혼가정에 대한 편견, 남성에게 기대 신분 상승하는 연약한 여성상의 제시는 두 민담의 치명적 약점이 됐다. 그로 인해 이 스토리들은 수많은 변주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경기도립국악단은 국악극 <콩데렐라>를 통해 매력적인 변주를 노린다. 우선 그들이 '콩데렐라'의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방식은 매우 한국적이다. 전통 소리를 기본으로 공쥐와 신데렐라 두 인물을 적절하게 오가며 새로운 이야기를 창조한다. 그러나 <콩데렐라>는 단순히 고전을 패러디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는다. <콩데렐라>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바로 무대이다. 이번 경기도립국악단이 꾸미는 무대는 매우 특별하다. 일명 '관객 놀이형 참여공연'으로, 관객들과 함께 놀고 싶어 과감하게 객석을 포기했다. 관객들이 모두 무대 위로 올라가고 배우는 관객들 사이를 자유자재로 오가며 맛깔나게 이야기를 풀어낸다. 공쥐와 신데렐라, 삼신할매가 보여줄 반전 있는 그녀들의 반전 있는 무대. 국악극 <콩데렐라>를 기대해보자.

PREVIEW

영웅이 남긴 한 발의 총알

뮤지컬 <영웅>

영웅. 그들은 비범하다. 또 그들은 뛰어나다.
그리고 그들의 정신은 시대를 관통한다.
한 발의 총알로 후대에 진한 감동을 남긴 사나이. 안중근이 무대에 오른다.





PREVIEW

행운을 전하는 천상의 소리

〈성시연의 브루크너 7번〉

경기필하모닉이 '앱솔루트 시리즈'의 두 번째 시리즈로 낭만주의 작곡가 브루크너와의 만남을 준비했다.

늦깎이 작곡가에게 행운을 가져다준 〈교향곡 7번〉, 브루크너에게 한걸음 성큼 다가가 보자.





“이 선율이 자네에게 행운을 가져다줄 걸세.”

27세라는 다소 늦은 나이에 작곡의 길에 들어선 평범한 작곡가였던 안톤 브루크너 Anton Bruckner, 1924~1896. 어느 날 꿈속에서 친구가 행운을 가져다줄 것이라며 불러 준 휘파람 소리를 그대로 작곡한다. 그리고 그 곡은 60이 다 된 브루크너에게 큰 영광을 가져다준 〈교향곡 7번Symphony no. 7〉의 1악장 주제 선율이 됐다.

브루크너는 원래 교사였지만, 일찌감치 음악적 재능을 인정받고 있었다. 그런 그가 음악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작곡가의 길을 걷게 된 것은 장크트 플로리안 수도원의 오르간 연주자로 임명되면서부터다. 이후 대위법적 작품들로 유명한 지문 제히터의 제자가 되어 본격 훈련을 받았다. 그러나 그에게 음악적 영향력을 깊고 굵게 행사한 이는 작곡가 바그너1813~1883였다.

평생 바그너를 동경했던 브루크너는 그가 사망하자, 바그너를 위한 애도의 곡을 만들었다. 그 곡이 바로 〈교향곡 7번〉 2악장이다. 〈교향곡 7번〉 중 가장 유명한 곡이기도 한 2악장은 히틀러가 자살했을 당시, 독일제국 방송에서 그 소식을 알리며 함께 내보내기도 했다. 브루크너는 바그너를 향한 존경을 담기 위해 2악장에서 바그너가 직접 고안했던 ‘바그너 튜바’를 사용하기도 했다.

올해 20주년을 맞이하는 ‘청년’ 경기필하모닉이 표현하는 브루크너의 〈교향곡 7번〉. 브루크너가 늦은 나이에 음악의 길에 본격적으로 들어선 후, 꿈결에서 들었던 친구의 말은 어쩌면 그가 품고 있던 희망이었을 것이다. 더불어 브루크너는 존경하는 우상에 대한 사랑을 숨기지 않았다. 깊은 종교적 음악을 추구하면서도 희망과 사랑을 잊지 않았던 브루크너와 경기필하모닉의 만남이 기대된다.

성시연의 브루크너 in 수원

일시·장소 6월 3일(토) 오후 5시
경기도문화의전당 대극장

가격 R석 4만원, S석 2만 5천원,
A석 1만 5천원

성시연의 브루크너 in 서울

일시·장소 6월 6일(화) 오후 8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가격 R석 8만원, S석 5만원, A석 3만원,
B석 2만원, C석 1만원

출연 지휘 성시연, 연주 경기필하모닉

관람연령 초등학생 이상

문의 031-230-3440~2





영웅이 그리워지는 시대

안중근의 발자취와 기개를 따라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 역에서 울린 일곱 번의 총성’ 위인전 〈안중근〉에서 자주 읽었던 문구다. 안중근은 하얼빈 역에서 총 일곱 차례 총을 쏘았다. 그 중 세 발은 이토 히로부미를, 나머지 네 발은 주변 인사들을 향했다.

안중근은 총알을 하나 더 가지고 있었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마지막 총알은 발사되지 않았고, 안중근은 체포됐다. 그 총알이 자살을 위한 것이었는지, 체포를 피하기 위한 것이었는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마지막 총알의 의미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경기도문화의전당에서 안중근 의사의 일대기를 담은 뮤지컬 〈영웅〉이 무대에 오른다. 안재욱, 정성화, 이지훈이 안중근 역을 맡아 열연한다. 제작진과 배우들은 하얼빈 현지를 방문해 하얼빈 역사, 재판소, 뤼순 감옥을 둘러보며 안중근의 발자취를 되짚어봤다고 한다.

실제로 뮤지컬 〈영웅〉은 매우 정석적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독립운동가 안중근을 더욱 굼직하게 그려냈다. 그가 가진 기개, 사상, 애국심은 〈정천동맹〉, 〈영웅〉 등의 곡으로 잘 드러난다. 2막의 〈누가 죄인인가〉는 안중근이 일본 법정에서 밝힌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했던 15가지의 이유를 토대로 만든 곡이다. 안중근이 어떤 인물인지 가장 잘 드러나는 대목이다.





대 한 민 국 이 어 , 진 정 한 영 용 을 만 나 라 !



뮤지컬 <영웅>

일시 6월 30일(금) 오후 8시 / 7월 1일(토) 오후 3시·7시
7월 2일(일) 오후 2시

장소 경기도문화의전당 대극장

출연 안재욱, 정성화, 이지훈, 김도형 외

가격 VIP석 13만원, R석 11만원, S석 8만원, A석 6만원

관람연령 만 7세 이상

문의 1544-9857

죽음 앞에서도 당당했던 당신을 기억합니다

이처럼 역사적 근거를 토대로 신중하게 만들어진 <영웅>이지만, 극의 개연성과 활기를 더하기 위해 창조된 인물도 있다. 명성황후의 마지막 궁녀 설희, 만두집 주인 왕웨이와 그의 여동생 링링이다. 특히 설희는 황후의 마지막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으로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에 대한 복수를 꿈꾸는 매력적인 여성이다. 그녀가 노래하는 <당신을 기억합니다. 황후 마마여>는 독립운동에 거침없이 뛰어드는 설희의 의지와 슬픈 감성을 잘 드러내는 곡으로, 관객들의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안중근은 한 발의 총알을 남기고도 자살하지 않았다. 그는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체포됐다. 남은 한 발의 총알은 모든 것을 스스로 선택했음을 의미한다. 감옥에서도 재판소에서도 당당하고 대담했던 안중근. 남은 총알은 그의 기개를 나타낸다. 그리고 그가 남겨놓은 유산은 후대에 그대로 전달되어 마침내 그를 무대로 불러올렸다. 영웅의 정신은 시대가 변해도 통하는 법이다.

과 감 하 게 콜 라 보 기



경기필하모닉 애플루트 시리즈 II 성시연의 브루크너 7번

일시 6월 3일(토) 오후 5시
장소 경기도문화의전당 대극장(수원)
가격 R석 4만원, S석 2만 5천원,
A석 1만 5천원

일시 6월 6일(화) 오후 8시
장소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서울)
가격 R석 8만원, S석 5만원, A석 3만원,
B석 2만원, C석 1만원

출연 지휘 성시연, 연주 경기필하모닉
관람연령 초등학교 이상
브루크너 〈교향곡 7번〉과 우아하고 유려한
브람스의 〈하이든 주제에 의한 변주곡〉이 준
비돼 있다.



아시아 클래식 시리즈 4 이경선 선행훈 장중진 챔버 콘서트

일시 6월 15일(목) 오후 8시
장소 경기도문화의전당 소극장
가격 R석 3만원, S석 2만원
출연 이경선, 선행훈, 장중진,
서울비르투오지
관람연령 초등학교 이상

2017년 경기도문화의전당 '아시아 클래식 시리즈'의 마지막. 바이올린 이경선, 선행훈, 비올라 장중진이 매력적인 실내악으로 시리즈를 마감한다. 특히 이번 공연에는 서울비르투오지 챔버 오케스트라가 함께하며 그 힘을 보탠다. 초여름의 낭만과 실내악의 진수를 맛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경기도립무용단 태권무 달하 10주년 기념공연

일시 6월 16일(금) 오후 8시
6월 17일(토) 오후 4시
장소 경기도문화의전당 대극장
가격 R석 4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출연 경기도립무용단
관람연령 만 5세 이상

경기도립무용단의 대표 브랜드 〈태권무 달하〉가 10주년을 맞이했다. 태초부터 인간의 탄생까지의 대서사시를 역동적이고도 아름답게 그려내는 〈태권무 달하〉가 4월 국립극장에서의 공연을 성황리에 마치고 경기도문화의전당으로 돌아왔다. 무예와 무용의 신선한 조합을 기대해보자.



브런치 콘서트 with 김종진 여름

일시 6월 22일(목) 오전 11시
장소 경기도문화의전당 소극장
가격 전석 2만 5천원
출연 김종진, 한영애
관람연령 만 7세 이상

경기도문화의전당의 대표 마티네 콘서트 '브런치 콘서트' 시즌2의 여름 공연이 찾아온다. 시즌 2에서는 주로 클래식 중심이었던 기존 마티네 콘서트의 틀을 깨고 대중음악과 밴드,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과감한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 봄여름가을겨울의 리더 김종진이 진행하며, 여름 손님으로 가수 한영애가 함께한다.



경기필하모닉 시니어콘서트 남자, 여자 그리고 부부

일시 6월 24일(토) 오후 5시
장소 경기도문화의전당 대극장
가격 전석 초대(사전 예약)
출연 지휘 성시연, 연주 경기필하모닉
관람연령 초등학교 이상

경기필하모닉이 음악극 〈남자, 여자 그리고 부부〉를 선보인다. 얼마 남지 않은 삶을 돌아보는 황혼기, 결혼 생활이 정점에 달하는 중년, 행복했던 시절을 찬찬히 거스른다. 사랑의 가치를 음악, 연기 등이 어우러진 음악극으로 보여줄 예정. 특히 대학로 연극 〈뷰티풀 라이프〉 배우진이 직접 출연해 완성도를 높였다.



임동혁 피아노 리사이틀 더 퍼스트 터치

일시 6월 25일(일) 오후 5시
장소 경기도문화의전당 대극장
가격 VIP 6만원, R석 5만원, S석 4만원,
A석 3만원
관람연령 초등학교 이상

피아니스트 임동혁이 피아노 리사이틀로 경기도문화의전당을 찾는다. 임동혁의 재능기여로 고른 스타인웨이 피아노를 새로 구입하고 처음 여는 피아노 연주회이다. 2005년 쇼팽 콩쿠르 3위 수상, 2015년 쇼팽 프렐류드 전국 음반을 발매한 바 있는 임동혁은 이번 공연을 통해 가장 아끼는 프로그램인 쇼팽 〈프렐류드〉를 선보일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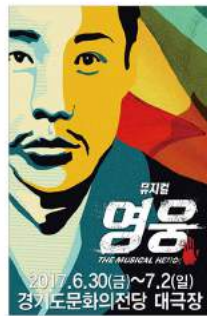


話양연화 시즌2

여름의 실수

일시 6월 27일(화) 오후 8시
장소 경기도문화의전당 소극장
가격 R석 3만 3천원, S석 2만 2천원
출연 이동진, 임경선, 토마스 쿡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콘서트 '話양연화 시즌2'. 추천한 책을 읽고 온 관객과 아티스트들이 한 가지의 테마로 교감한다. 이번 여름 공연의 테마는 '실수'. '話양연화' 시리즈의 영화평론가 이동진이 진행을 맡고, 싱어송라이터 토마스 쿡, 작가 임경선이 함께한다. 책과 음악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한 편안한 시간을 마련한다.



뮤지컬

영웅

일시 6월 30일(금) 오후 8시
 7월 1일(토) 오후 3시·7시
 7월 2일(일) 오후 2시
장소 경기도문화의전당 대극장
가격 VIP석 13만원, R석 11만원,
 S석 8만원, A석 6만원

출연 안재욱, 정성화, 이지훈, 김도형 외
관람연령 만 7세 이상

대한민국의 영원한 영웅, 안중근이 뮤지컬로 재탄생한다. 안재욱, 정성화, 이지훈이 안중근을, 리사와 정재은이 비운의 여인 설치를 연기한다. 시대를 초월하는 영웅의 정신이 무엇인지 알려줄 예정이다.



경기도립국악단

후원의 밤

일시 6월 30일(금) 오후 8시
장소 경기도국악당 흥겨운 극장
가격 전석 무료
출연 경기도립국악단
관람연령 만 7세 이상

경기도립국악단이 <후원의 밤>을 통해 뜻 깊은 공연을 마련했다. 경기도립국악단 후원 회원과 일반 관객들을 대상으로 전석 무료 공연을 선보인다. 화제의 '치세지음 프로젝트'를 통해 갖고 닦은 연주 실력을 과시할 예정. 각 악기에 맞추어 작곡된 특별한 곡들과 앙상블 연주 및 해설이 준비됐다.



경기필하모닉

마스터클래스 파이널 콘서트

일시 7월 6일(목) 오후 8시
장소 경기도문화의전당 대극장
가격 전석 초대
출연 경기필하모닉
관람연령 초등학교 이상

경기필하모닉 '마스터클래스'에서 신예 음악가들이 프로 오케스트라를 직접 지휘하고 오케스트라 창작곡을 실연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 경기필하모닉 예술단장 겸 상임지휘자 성시연과 경희대 작곡과 교수 김희라가 직접 지도한다. '마스터클래스'는 일반인 참관이 가능하며, 마지막 날 진행되는 파이널 콘서트는 전석 무료다.



경기도립국악단

콩데렐라

일시 7월 15일(토) 오후 2시·5시
장소 경기도문화의전당 대극장
가격 전석 3만원
출연 경기도립국악단
관람연령 만 5세 이상

한국 대표 전래동화 <콩쥐팍쥐>의 콩쥐와 서양 대표 민담 <신데렐라>의 신데렐라가 만났다. 이 반전 스토리에서 더 나아가 경기도립국악단은 객석을 모두 없애고 관객들을 무대 위에 앉혀 연주자와 배우, 관객이 모두 어우러지는 특별한 공연을 만들 예정이다. 콩데렐라와 함께 무대를 즐기며 스트레스를 날려보자.



어린이 체험전

얼렁뚱땅 색깔공장

일시 7월 15일(토) ~ 9월 17일(일)
장소 경기도문화의전당 빛나는 갤러리
가격 어린이 2만 3천원, 성인 1만 7천원
관람연령 24개월 이상

어린이 체험전 <얼렁뚱땅 색깔공장>이 경기도문화의전당에서 열린다. 총 5가지 테마(알록달록, 둥글둥글, 반짝반짝, 빙글빙글, 속삭속삭)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해 크레파스를 뽐아보기도 하고, 자동차에 직접 색을 칠해보기도 하는 등 일상 속에서 쉽게 접하지 못하는 재미있는 체험들을 할 수 있다.



REVIEW

시대를 앞서는 아시아 음악의 스펙트럼

〈ASIA SONG FESTIVAL〉

경기도립국악단이 경기의 지난 천년 역사를 되짚어보고 앞으로 천년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야심차게 진행 중인 '경기 새천년 국악프로젝트'의 일환으로 〈ASIA SONG FESTIVAL〉을 진행했다.

아시아 음악 시장을 흔드는 아티스트와 한국음악의 만남은
마치 아시아 여섯 나라로 음악 여행을 떠나는 듯한 황홀함을 선사했다.

글 현경채 음악평론가, 〈배낭 속에 담아 온 음악〉 저자



캄보디아_Nhoeng Kanol



캄보디아_Sam-Ang Sam



북한_권설경



한국_김용우



베트남_Duong Hoang Yen



몽골_BEHI Band



말레이시아_Asmidar

진한 커피 향과 청나라풍의 아오자이로 가득했던 베트남의 하노이에서는 타임머신을 탄 듯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고, 파란 하늘과 맑은 햇살이 끝없는 초원을 비추던 몽골은 산악지형을 울리던 독특한 메아리의 '호미' 창법으로 눈과 가슴과 귀를 시원하게 했다. 앙코르 와트의 역사적인 건축물 사이로 보이던 전통춤 '암사라'는 캄보디아 여행 중의 잊지 못할 기억을 남겨 주었고, 모던함의 극치로 빛나던 쿠알라룸푸르의 페트로나스 트윈타워의 야경은 허집을 두른 이슬람 문화권의 여인들과 묘한 조화를 이루며 말레이시아를 특별한 나라로 기억하게 한다. 여행은 많은 사람의 로망이고, 이국적인 풍경 속으로 떠날 수 있는 사람은 부러움의 대상이 된다. 새로움에 새로움을 더한 <ASIA SONG FESTIVAL>은 아시아 6개국으로 떠나는 음악 여행이었다. 말레이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몽골, 북한 그리고 한국까지 각 국의 정상급 아티스트는 환상적인 콜라보 무대를 선사했다.

베트남 여가수 두옹 호앙 옌은 디즈니 애니메이션 영화 <겨울 왕국>의 베트남어 OST <Let It Go> 가수로 발탁된 디바이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출신의 애스미다는 2009년 세계 공연 예술 챔피언십의 대표 선수로 활약했던 스타급 여가수다. 캄보디아의 농 카논은 소수민족을 위한 노래를 불러 유명한 민권운동 가수이며, 베히(BEHI) 밴드는 몽골 전통음악을 연주하는 3인조 여성밴드 팀이다. 권설경은 탈북 기타신동이고, 김용우는 전통에 기반을 둔 신세대 소리꾼이다.

<ASIA SONG FESTIVAL>은 '아시아 음악회'라는 브랜드를 만들어 온 경기도립국악단이 국악이라는 장르에 국한되지 않고 더 넓은 스펙트럼의 음악적 패러다임을 보여주고자 한다는 점과 아시아 가요를 통해 대중성을 확보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 공연이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통음악의 예술성으로 대중과 소통하고, 시대를 앞서는 상상력의 축제를 펼칠 경기도립국악단의 행보에 기대를 건다.

명장의 손끝에서 온전히 완성된 감동

〈무티 베르디 콘서트〉

다시 읽고 넘어갈 순간!!



순간적으로 왼손으로 제어하는 동물적인 본능과 일종의 지휘 포즈에 있어서 아고직Agogics 같은 역템포 발구름, 색채의 변화와 임팩트를 예고하는 왼손의 강인하되 아름다운 제스처들, 여기에 소프라노의 포인트 강한 자음의 유절적인 호흡 및 적절한 예비 숨소리가 없어지며 이 아리아들로부터 생경할 정도의 표현력과 몰입도 높은 서정성이 뿜어져 나왔다. 이러한 감동은 전적으로, 온전히, 의심할 바 없이 리카르도 무티라는 거장 한 사람의 힘 덕분으로서 오케스트라의 처음과 끝은 바로 지휘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Viva Riccardo!

글 박제성 음악칼럼니스트



4월 6일 경기도문화의전당 대극장에서 포문을 연 경기필하모닉과 리카르도 무티의 <무티 베르디 콘서트>. 첫 곡 <나부코> 서곡부터 베르디 튜바의 선율미와 투티의 밀도감을 통해 무티가 지휘대에 서 있음을 각인케 했다. 이어진 소프라노 여지원이 부르는 <맥베스>의 아리아들에서는 또 다른 베르디의 예술이 펼쳐졌다. 무티가 한국에서 성악가와 공연을 한 것은 이번이 최초로 몹시 기대가 컸는데, 무티에 의해 발탁됐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음악적 의중을 완벽하게 간파하고 있는 그녀는 완벽 이상의 덕션과 섬세한 표현력으로 한 편의 모노드라마를 연상케 하는 연극적인 장면들을 광활하게 펼쳐냈다. 평소 인지하고 있던 대포알 같은 맥베스 부인은 아니지만, 서사적인 운율과 음악적인 디테일을 중요시하는 무티의 관점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무티는 오케스트라의 디테일 강조와 파트별 대조의 구성, 논리적인 긴장감 고조와 극적인 엑스타시의 발산을 통해 아리아의 내용을 완벽하게 오케스트라 사운드로 구현해냈다. 베르디의 예술은 하나부터 열까지 극에서 출발하고 극에서 끝남을 극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이어진 <시칠리아 섬의 저녁기도> 서곡과 아리아들. 무티의 지휘 예술을 확인할 수 있었던 아주 좋은 기회로서, 경기필하모닉과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호흡을 함께한 만큼 단원들도 무티의 리드에 잘 부응했다. 무엇보다도 첼로 파트를 너울거리게 하는 무티의 그 광휘에 쌓인 송고한 왼손과 세상에서 가장 멋진 지휘봉의 종지는 결코 잊지 못할 것 같다. 이탈리아 오페라 또한 오케스트라의 완벽한 성격적, 표현적, 입체적인 해석이 뒷받침돼야 비로소 극이 완성됨을 여실히 느낄 수 있었다.

<에르나니>에서는 오로지 지휘자의 제스처만 바라봤다. 시각만으로도 무티가 의도하는 음악적 표현과 뉘앙스를 모두 청각적으로 환원하여 이해할 수 있을 정도, 미묘한 뉘앙스나 템포까지도 결코 상체의 사각형 구도를 벗어나지 않는 고전적인 지휘법을 벗어나지 않고자 순간적으로 90도로 상체를 획 돌리며 소프라노와 호흡을 맞추는 완벽주의적 고집스러움 또한 황홀함을 배가시켰다. 이후 2부에서 펼쳐진 <시칠리아 섬의 저녁기도>, 발레음악 <사계> 또한 베르디 음악의 위대함을 칭송하기에 모자람이 없었다.

한편 4월 7일 롯데 콘서트 홀에서 열린 두 번째 콘서트에서 무티와 오케스트라는 첫날보다 훨씬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홀 자체의 환상적인 울림이 배가돼 더욱 찬연한 음악을 만들어냈다. 특히 여지원은 극적 요소들과 장치적인 디테일을 더 정교하게 보여줬고 무티는 <사계>에서 비할 바 없는 리듬감과 이탈리아적인 정서, 무티 본연의 환상적인 매력을 더 강력하게 발산했다.

감동의 도가니를 선물한 3인의 원정대

〈2017 경기실내악축제〉

경기도문화의전당이 명품 실내악 공연을 선보여 온 지 올해로 3년째이다.

2015년부터 시작된 경기실내악축제는 그동안 국내외 명성 있는

아티스트들과 함께 다채로운 실내악 무대를 꾸며왔다.

한국의 실내악 문화를 선도해 나가고 있는 경기실내악축제.

올해도 어김없이 실내악의 정수를 보여준 풍성한 프로그램을 들고 우리 곁을 찾아왔다.

글 김소연 〈월간 피아노음악〉 기자 / 〈월간 피아노음악 발췌〉



5월 13일, 예술의전당 앞은 경기실내악축제의 서막을 축복이라도 하는 듯 시원한 봄비가 한껏 내렸다. 그리고 공연 시간이 다가오자 신기하게도 하늘은 맑게 개었고, 음악당 안은 경기실내악축제를 찾은 관람객들로 유난히 붐볐다. 이날, 축제의 오프닝 무대를 위해 모인 세 명의 음악가는 피아니스트 김정원, 바이올리니스트 김지연, 첼리스트 송영훈이었다. 이미 다양한 매체를 통해 두터운 팬층을 쌓고 있는 이들의 반가운 등장에 관객들은 열렬히 환호했다.

바이올리니스트 김지연의 명쾌한 멘트와 함께 공연은 시작됐고, 첫 곡으로 멘델스존의 〈피아노 3중주 2번 c단조, Op.66〉이 연주됐다. 피아노에 정통했던 멘델스존은 피아노 파트에 비르투오소적인 역할을 특별히 더 부여했다고 한다. 김정원은 음악의 전체 라인을 풍성한 울림으로 뒷받침하며 트리오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갔고, 크고 작은 뉘앙스까지도 섬세하게 맞춰가는 센스를 선보였다. 2악장 서주는 안정된 톤의 피아노 선율로 시작됐으며 바이올린과 첼로의 아름답고 서정적인 멜로디가 그 뒤를 이었다. 그리고는 생기 넘치는 3악장을 거쳐 마지막 론도 악장으로 치달았다.

1부에서 산뜻한 음악에 잘 어울리는 하늘빛 드레스를 입었던 김지연은 2부에서 연주될 정열적인 음악에 맞춰 빨간 드레스를 입고 등장했다. 예술감독을 맡은 바이올리니스트 강동석과 함께 이번 실내악축제의 메인 아티스트인 김지연은 자유롭고 생명력 넘치는 보잉으로 보는 이들이 절로 탄성을 지르게 만들었으며 특히 위로 치솟는 소리의 울림에서 음악에 대한 광활한 에너지를 느낄 수 있었다. 2부 첫 무대를 장식한 곡은 드보르작의 〈피아노 3중주 제4번 e단조, Op.90 '뚝키'〉이다. 피아노 트리오 작품 중 많은 연주자와 청중이 사랑하는 곡, '뚝키dumky'는 '뚝카dumka'의 복수형으로 우크라이나 지방에서 유래한 민속음악, '두마duma'의 축소형이다. 작품 전체에 슬라브 정서가 깔린 드보르작의 〈뚝키〉, 피아노는 옛 추억을 조용히 회상하듯 민족의 애환을 노래했다. 그리고 중저음의 첼로가 채워주는 묵직한 중심은 바이올린의 매력적인 음색과 어우러져 완벽한 앙상블을 만들며 한 편의 영화와 같은 장면을 연출해 냈다.

연주자들은 화려한 대미를 위해 피아졸라의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4계〉 중 '가을'과 '봄'을 선택했다. 피아노 3중주 버전으로 편곡된 이 곡은 탱고 특유의 정열적인 리듬이 효과적으로 드러나며 형식과 음악적 흐름에 있어서 비발디의 〈사계〉와 많은 부분이 닮아있다. 연주자들은 이 곡을 통해 축제의 분위기를 환상적으로 마무리했고 관객들은 품위있는 연주력으로 레퍼토리를 소화해낸 연주자들에게 뜨거운 박수를 아끼지 않았다. 앙코르로는 열기에 취한 관객들이 평화롭게 마음을 정돈하며 돌아갈 수 있도록 멘델스존의 〈피아노 3중주 제1번 d단조, Op.49〉가 연주됐다.

서울에서 성공적으로 시작된 경기실내악축제는 수원, 고양, 연천, 구리, 안산 등 경기도 각지에서 펼쳐졌으며, 특별히 구리에서는 작곡가 윤이상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플루티스트 최나경, 피아니스트 선우예권, 소프라노 산탈 마티아스, 바이올리니스트 장유진이 나섰다.

경기도를 넘어, 한국 클래식 공연문화의 레벨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경기실내악축제. 앞으로도 최고의 실내악 음악을 위해 이들의 원정이 계속되기를 바란다.

IN

A R T &
P E O P L E

40

GGAC가 만난 사람 I

상처 입은 용, 다시 날아오르다
경기도립극단
이찬우, 장정선, 윤성봉 단원

GGAC가 만난 사람 II

청년 안중근에게 묻는다
뮤지컬 <영웅> 주연 이지훈

48

예술가의 방

경쾌한 리듬을 두드려라,
그러면 마음이 열릴 것이다
경기필하모닉 타악 파트
황진학, 윤재현, 김철우, 송민정 단원

INTERVIEW



52

타인의 취향

공연과 공감하는 법

전당과 교감하는 법

아트플러스 10년째 회원 전영희 씨

상처 입은 용, 다시 날아오르다

경기도립극단 이찬우, 장정선, 윤성봉 단원

작곡가 윤이상을 기리는 공연이 한두 번 열린 것은 아니다.
하지만 보통은 연주회 형식이다. 작곡가라는 그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음악이기 때문일 터. 그러나 그의 탄생 100주년을 맞은 올해,
아주 특별한 작품 한 편이 무대 위에 올려진다. 윤이상의 음악만이 아닌
예술가로서의 삶을 조명한 연극 <윤이상; 상처 입은 용>이 바로 그것.
이 특별한 무대 위에서 윤이상의 인생 면면을 솔직담백하게 그려낼
경기도립극단의 이찬우, 장정선, 윤성봉 단원을 만났다.





예술가로서의 윤이상, 의미 있는 도전

이번 연극은 작곡가로서만이 아닌 예술가로서 윤이상의 삶을 조명한다는 점에서 좀 더 특별한 의미가 있다. 이 무대에서 다양한 연령대별 윤이상을 연기할 이찬우, 장정선, 윤성봉 단원 역시 예술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숨 쉬며 살아가는 사람들로, 윤이상과 자연스레 공감대를 형성하며 그가 될 준비를 마쳤다. 하지만 윤이상을 연기하는 것이 단원들에게도 쉬운 결정은 아니었다. 대중은 물론 자신들에게조차 낯설게 느껴지는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대본을 읽는데 말미에

루이제 린저의 이런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작곡가 윤이상에 대해 쓰는 것이 아니고

독재 체제에 의해 자유를 빼앗긴 한

예술가에 대해 쓰는 것이라고.

바로 이 점에서 저는 분야는 다르지만

예술이라는 틀 안에서 일정 부분 공감대를

가질 수 있었고, 이 작품에 참여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단원 이찬우)



경기도립극단 단원 이찬우

단원들은 이번 연극에서 윤이상이 순수하게 음악을 만났던 어린 시절부터 정치적 사건에 연루돼 고달픈 생을 보냈던 시기 등 다채로운 면면을 그려내야 한다. 하지만 단원들에게 윤이상은 연기하기 쉬운 대상이 아니었다. 더구나 세계적인 명성에 비해 국내에서는 많이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라 참고할 수 있는 자료도 많지 않았다. 29세의 윤이상을 연기하게 될 윤성봉 단원도 처음에 ‘왜 이 사람 작품을 해야 할까’하는 생각을 했단다. “인터넷에서 음악을 찾아 들어봤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마치 피카소의 그림을 보고 난해하다는 느낌을 받는 것 같았죠. 그래서 왜 이 사람을 조명해야 하는지 의아했던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대본을 읽으면서, 그리고 연출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윤이상이라는 작곡가를 어렵웃이나마 알게 됐죠. 그리고 나니 예술가로서 이 사람의 삶을 조명하는 게 얼마나 의미있는 일인지 보이더군요.”

윤이상의 삶을 연기한다는 어려움과 즐거움

극의 중심에서 54세의 윤이상을 연기하는 이찬우 단원은 현존했던 인물을 연기한다는 데 배우들 모두가 큰 부담을 느꼈다고 말한다.

“존재하지 않는 창작의 인물과는 매우 달라요. 살아계셨던 분이니까 그 사람을 제대로 표현해낸 것일지에 대한 고민이 끝이 없죠. 인물을 제대로 이해하고 연기하는 것이 배우의 몫이니까 아무래도 허구의 인물을 연기하는 것보다는 더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극단 내에서 자칭, 타칭 아역 전문이라 불리는 장정선 단원은 이번 공연에서 6세의 어린 윤이상을 연기한다. 그녀 역시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다. “전 어떤 이해관계도 없이 음악 자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수한 6세의 윤이상을 연기해야 해요. 특히 그 시절 처음 음악을 접하고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윤이상과 내가 연기하는 이 모습이 맞을까, 잘 표현하고 있는 걸까 하는 고민이 있죠. 제가 최선을 다해 배역에 녹아드는 것과는 별개로 고민은 계속되는 것 같아요.”

그녀의 말에 윤성봉 단원 역시 고개를 끄덕인다. “하지만 그런 고민과는 또 다른 즐거움도 있어요. 어쨌든 나와는 다른 인물을 연기하는 것이니까. 새로운 사람을 알아가고 그를 통해 나 또한 성장해가는 즐거움이란 것도 있죠.”

이찬우 단원도 “맞아요. 전 인터뷰를 통해 과거를 이야기하는 54세의 윤이상이니 보니 그가 6세, 29세, 47세의 윤이상을 돌아볼 때 자연스럽게 20대, 30대때의 나 자신도 함께 돌아보는 즐거움이 있어요”라고 덧붙였다.

유명하지만 낯선 윤이상, 가깝게 느끼기

또 하나 이 연극의 특별한 점은 연령대별로 모두 다른 윤이상이 등장한다는 것이다. 한 사람이 아님에도 한 사람처럼 연기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단원들은 여러 명의 윤이상을 만난다는 것이 관객들에게 신선하고 색다른 즐거움으로 다가갈 것이라 말한다.

“기본적으로는 잘 몰랐던 한국 작곡가 윤이상, 그 음악가의 안타까운 삶을 알아가는 즐거움이 있겠죠. 또, 여러 명의 윤이상이 나오다 보니까 ‘결국엔 하나이지만 하나이지 않은’ 윤이상을 만나는 즐거움도 있을 거고요.”

장정선 단원은 “연극 끝부분에 6세의 윤이상이 노년의 윤이상에게 누구냐며 우리나라 사람 아니냐고 묻는데, 사람은 그렇게 끊임없이 자기에게 질문을 던진다고 생각해요. 이찬우 선배도 연기하면서 과거의 나를 만나는 듯한 즐거움이 있다고 얘기했듯, 관객들도 이 연극을 통해 과거의 자신을 만나고 돌아보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라고 마지막 말을 덧붙였다.

무수한 음표들이 오선지 위를 오르내리듯 굽이치는 역사 속에서 굴곡진 삶을 살았던 작곡가 윤이상. 그를 연기하기 위해 단원들은 오늘도 시나리오에 적혀 있는 섭표 하나까지 꼼꼼히 읽고 곱씹는다. 아직 무대의 막이 오르지 않은 지금, 관객들 또한 단원들이 생각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연기에 대한 에너지로 가득한 그들이 무대 위에서 윤이상을 다시 날아오르게 함으로써 관객들은 유명하지만 낯선 작곡가 윤이상에 조금 더 가까워질 것은 분명하다.



경기도립극단 단원 윤성봉



경기도립극단 단원 장정선



청년 안중근에게 묻는다

뮤지컬 <영웅> 주연 이지훈

<삼총사>의 달타냥, <엘리자벳>의 루이지 루케니, <모차르트!>의 볼프강 모차르트,
그리고 <영웅>의 안중근. 굵직한 필모그래피를 쌓아온 착실한 뮤지컬 배우가 있다.
발라드 가수로 시작해 뮤지컬 무대에서 맹활약을 펼치는 이지훈.
진정성 있는 노력으로 무대와 관객들을 사로잡은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뮤지컬 <영웅>의 주인공을 맡았습니다.

안중근을 연기하기를 오랫동안 바라왔고, 꾸준히 준비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작품을 하게 된 소감을 들을 수 있을까요?

초연 때부터 <영웅>의 배우들을 보며 꿈을 키워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중근 역을 맡게 된 것은
굉장히 영광입니다. 제가 갖고 있지 않은 연기와 소리를 준비하는 큰 도전이기도 했습니다. <영웅>을
통해 많이 성장했습니다.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위인전이나 역사적 자료를 통해 안중근 의사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뮤지컬 <영웅>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안중근은 어떤 사람인가요?

역사적으로는 다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말타기와 사냥에 능했고 명사수로 알려지는
등 장군의 기질이 있었고, 나라의 위기를 깨닫고서 본인의 모든 것을 나라에 바친 결단 있는 남자죠.
그러면서도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리더의 자질도 보였던 분이시고요. 이러
한 바탕 위에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안중근은 인간적인 인물입니다. 전쟁에서 패배하고 많은 동지를
잃었을 때의 슬픔,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들의 죽음을 지켜볼 수밖에 없던 이픔, 리더로서의 압박감, 과
연 잘 해내 갈 수 있을까 하는 책임감. 그리고 마지막 <장부가>에서 죽음을 앞두었을 때의 심리. 그런
것들을 좀 더 깊이 있게 표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직도 발라드 〈왜 하늘은〉이라는 곡을 부르던 소년의 모습으로 이지훈 씨를 기억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방송에서 보여준 재치 있는 모습도요. 부드럽고 장난기 어린 이미지를 지녔는데
 ‘영웅’ 안중근을 표현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하셨나요?

아직도 저를 어리게 보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번 안중근 같은 경우에는 열정적인 청년의 이미지를 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 미성이었던 소리의 톤을 바꾸기 위해서 노래 연습을 많이 했어요. 우선 음색의 변화를 위해 애썼습니다. 조금 더 무게감 있는 소리를 내기 위해서 테너에서 바리톤의 소리로 변화를 주었고요. 연기톤도 원래는 제가 하이톤을 많이 쓰는데 무게감 있고 중후한 느낌을 내기 위해서 로우톤으로 소리의 질감을 바꾸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뮤지컬 작품은 오디션부터 연습, 각 공연장을 순회하는 것까지 꽤 긴 호흡이 필요합니다.
 무대를 장악하는 힘을 계속 비축해야 하고요, 작품을 향한 집중도를 위해,
 또 체력 관리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지 궁금합니다.

체력 관리를 위해 공연 전 운동을 필수로 하고 있습니다. 웨이트 트레이닝과 필라테스를 병행하고 있지요. 또 신체 컨디션도 중요하지만, 목의 근육을 풀어주는 것도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공연이 있는 날은 항상 레슨을 받고, 발성 연습도 하고, 충분히 목을 풀어준 다음 무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뮤지컬을 시작하신 지 벌써 10여 년이 됐습니다. 그동안의 작품들을 돌아보면
 감회가 남다를 것 같아요.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과 캐릭터가 있다면요?

다 제 자식 같은 작품이기 때문에 고르기는 쉽지 않은데요, 어떤 작품이든 그 나름대로의 맛이 있고 느낌이 있으니까요. 그래도 고르자면 저는 〈모차르트〉가 기억에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그 당시에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었거든요. 감기에 장염, 대상포진까지 그 어려움 속에서 끝까지 완주했던 작품이라 기억에 많이 남아요. 또 저한테 잘 맞았던 작품이기도 했고, 그만큼 발전도 많이 한 것 같아 더욱 애착이 갑니다.

'내 인생의 영웅' 한 사람을 꼽으라면 이지훈 씨는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내 인생의 영웅이라... 일단 신앙을 가진 한 사람으로서, 저의 영웅은 제가 믿는 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 주위분께 굉장히 많은 부분의 터치와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제 인생의 멘토로 생각하고 있죠. 그분을 통해 삶을 배우고 그분을 통해 인생을 배우고 있습니다.

뮤지컬 <영웅>은 그 제목만으로도 우리를 설레게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를, 우리를 구원해 줄 영웅에 대한 판타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지훈 씨가 생각하는 이 시대의 영웅상이 궁금합니다.

영웅이라면 리더의 역할을 잘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저는 희생하는 마음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항상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요즘같이 어려운 시국을 리더의 자격으로 잘 이끌어 나가지 않을까요?

이번 <영웅>은 안재욱, 정성화, 이지훈의 트리플 캐스팅으로 많은 이의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다른 주인공들과는 차별화된 이지훈의 안증근에 대해 말씀해 주신다면,

아무래도 두 분과 저는 많이 다르겠죠. 저는 조금 더 젊은 청년의 이미지를 부각하는데 주력했습니다. 두 분께서 절제된 내면을 보여주셨다면, 저는 열정적으로 감정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내고 표현하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앞으로 이지훈 씨의 계획과 꿈이 궁금합니다.

10년 후, 우리는 어떤 이지훈을 만나게 될까요?

10년 후에는 한 가정의 아빠, 그리고 남편이지 않을까요? 또, 공연을 오랫동안 하고 싶어요. 제가 지금까지 해온 것은 이것밖에 없으니까요. 이 일을 더욱더 열심히 해서 긴 시간 무대에 서는 배우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연장을 찾아올 관객들에게 <영웅> 관람 포인트를 알려주신다면요?

<영웅>은 약 40명의 배우가 함께하는 스케일이 큰 작품입니다. 앙상블들이 아주 멋지게 열연을 해주시는 추격을 비롯해, 열차가 들어와서 진짜 열차가 움직이는 듯 보이는 장면 등 굉장히 화려한 볼거리가 많습니다. 또 가사를 잘 음미하시면 마음에 애국심이 불타올 수 있는 좋은 음악들이 준비돼 있습니다. 음악을 들으시면서 그 음과 가사에 집중해주시기를 바랄게요.



경쾌한 리듬을 두드려라, 그러면 마음이 열릴 것이다

경기필하모닉 타악 파트 황진학, 윤재현, 김철우, 송민정 단원

타악기 연주자를 일컫는 퍼커셔니스트Percussionist는 마치 골키퍼와 닮았다.

곡의 시작부터 끝까지 현란한 움직임을 선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메인 음악을 뒷받침하면서 가장 중요한 순간 활약하기 때문이다.

때때로 그들은 스트라이커와도 닮았다.

청량하고도 강렬한 리듬으로 음악의 전면을 책임지며 관객의 마음을 두드리기 때문이다.

두 얼굴을 가진 타악 파트와의 만남.





황진학 수석단원

Gyeonggi Provincial Philharmonic Orchestra



송민정 상임단원

타악의 세계

경기필하모닉 오케스트라에 환상의 호흡을 자랑하며 강한 인상을 남기는 파트가 있다. 무대 뒤에서 다양한 타악기를 두드리고, 치고, 굽고, 흔들고, 문지르며, 솔직하게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황진학 수석단원, 윤재현 차석단원, 김철우 상임단원, 송민정 상임단원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타악기는 리듬과 음색에 집중된 악기로, 종류만 해도 무수히 많아요. 또, 금속·나무·가죽 등 악기의 소재와 타점·강약 등 두드리는 방식에 따라 수천 가지 소리를 낼 수 있어 알면 알수록 매력 넘치죠.”

또 흥미로운 것은, 타악 주자는 하나의 악기만 다루는 데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마림바나 실로폰 등 선율 타악기를 비롯해, 팀파니·스네어드럼·심벌즈 등 리듬 타악기와 효과 타악기까지 다양하게 넘나들며 멀티플레이어가 된다. 그렇다면 단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타악기는 무엇일까. 윤재현 단원은 “특별히 고집하는 악기라기보다는, 오랜 시간 함께하다 보니 저희끼리의 룰이 있어요. 황진학 단원께서는 팀파니를 주로 담당하고, 송민정 단원은 마림바 등 건반 타악기를 맡는 편입니다. 저와 김철우 단원은 이 두 가지를 제외한 각종 타악기를 주어진 대로 연주합니다”라며 겸연쩍은 미소를 보였다.

타악의 오해와 이해

그런데 ‘타악기는 다른 파트를 뒷받침하는 게 주된 역할이다?’ 곡의 최고조에서 화룡점정을 찍는 것도, 때로는 곡을 앞서 이끌어 가는 것도 타악 파트의 매력이자 몫이다. 그렇다면 ‘다른 악기는 바빠 움직이는데, 타악기는 연주보다 쉬는 시간이 더 길다?’ 이 역시 타악 연주자에 대한 오해 아닌 오해. 송민정 단원은 “연주하는 마디가 적다고 해서, 저희 또한 긴장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타악은 박자와 리듬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때 연주하기 위해서 음악을 전부 숙지해야 하고, 흐름을 계속 타면서, 자연스럽게 연주를 들어가야 하죠. 마음속으로 마디 수를 세면서 한창 곡에 열중해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리하여 네 단원이 타악기의 풍성한 매력에 빠져볼 수 있도록 추천해 준 음악은 바로 팀파니의 묵직한 타격감이 인상적인 스트라빈스키의 <봄의 제전>과, 김연아 선수의 프리스케이팅 배경 음악으로도 활용되었던 린스카-코르사코프의 <세 에라자드>다.

“타악기의 풍성한 매력을 느껴보고자 한다면, 고전음악이나 낭만음악보다는 현대 음악을 들어보세요. 보다 풍성하고, 전혀 새로운 모습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만하면 괜찮은 가족

이렇게 네 사람이 타악 파트에서 함께 호흡 맞춘 지도 어느덧 5년. 황진학 단원은 자신들을 ‘가족’이라 칭했다.

“어떻게 보면 하루에 가족과 보내는 시간보다 단원들과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아요. 5년간 서로 의지하고 도와가면서 음악길, 인생길을 함께 걸어왔으니 이제 눈빛만 봐도 어떤 생각을 하는지 대충 읽을 수 있죠. 결국 저희 사이에 흐르는 좋은

“타악기의 풍성한 매력을
느껴보고자 한다면, 고전음악이나
낭만음악보다는 현대음악을 들어보세요.
보다 풍성하고, 전혀 새로운 모습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윤재현 차석단원



김철우 상임단원

기운은, 좋은 음악을 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멋진 음악
에는 진심이 담겨야 하니까요.”

특히 황 단원은 경기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창단됐던 1997
년부터 함께 시작한 원년 멤버. 경기필하모닉의 성장은 곧
그가 음악인으로도 잘살아왔다는 증거가 되어주기도 한다.

“어쩌다 보니 제가 이곳의 살아있는 화석이네요(웃음). 지금
몸담고 있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경기필하모닉은 최고의
음악인으로 구성된 드림팀이라고 자부해요. 한 분 한 분 각
자의 분야에서 최고의 실력을 갖춘 분들이 모였고,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그것은 외부로부터도 인정받
고 있으니깐요.” 그의 한마디, 한마디에서 경기필하모닉 오
케스트라에 대한 애정이 그득하다.

너무도 인간적인 순간

아무리 완벽한 사람에게도 아찔한 순간은 있는 법. 기억에
남는 순간을 묻자 저마다 웃지 못할 사연을 꺼내 놓았다.

“저희가 오케스트라 무대에도 서지만, 가끔 오페라 피트 연
주에 참여할 때도 있어요. 공연 도중, 화장실이 너무 가고 싶
었는데 오페라는 1막이 30~40여 분이거든요. 그 막이 끝
날 때까지 꼼짝없이 참아내느라고, 정말 죽는 줄 알았답니
다. (황진학 단원)”

“타악기가 몇 마디 등장하지 않는 곡이라 계속 집중하고 있
었어요. 그런데 일순간 놓쳐버린 거 있죠. 특히나 심벌 주자
일 때 놓치면 정말 황당하답니다. (김철우 단원)”

슈트 차림에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완벽해 보였던 그들에
게서 너무도 인간적인 모습을 발견하는 순간이다.

큰 무대든, 작은 무대든 문을 열고 무대의 오르는 순간, 여전
히 떨린다는 이들. 앞으로도 이 멋진 악기를 계속 알려 나가
는 동시에, 행복한 음악인으로, 게으르지 않은 음악인으로,
누군가의 꿈으로 기쁘게 살아가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다.

“행복은 음악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잖아요.
리듬을 두드려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음악이 가진 힘을 전
해 모두가 음악 안에서 행복할 수 있도록, 경기필하모닉이
더 좋은 공연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가
장 잘할 수 있는 일이니깐요.”

INTERVIEW

공연과 공감하는 법 전당과 교감하는 법

아트플러스 10년째 회원 전영희 씨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자신만의 숨 고르기가 필요할 때,
가슴 뛰게 하는 친구가 그리울 때, 소중한 사람들과 감성지수를 높이고 싶을 때,
그때, 전영희 씨의 발걸음은 경기도문화의전당으로 향한다.

문화예술공연에 한발 가까이

“2008년부터 아트플러스 회원이었어요. 당시에는 유료 특별 회원이란 명칭이었죠. 4년 전부터는 전당 공연 모니터 요원으로도 활동 중이에요.”

전영희 씨의 이 한마디는 그녀가 경기도문화의전당에 대한 애정이 얼마나 깊은지 단번에 짐작케 했다. 감정평가사로 활동하고 있는 그녀가 이토록 경기도문화의전당과 ‘절친’이 될 수 있었던 건, 새로운 환경 속에서 크게만 느껴졌던 벗의 빈 자리를 문화공연으로 채워나간 덕분이다.

“서울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2004년경 수원으로 거처를 옮겼어요. 친정 부모님 외에 아는 사람이라곤 없다 보니 이따금 외로웠고, 그때 경기도문화의전당이 좋은 친구가 되어주었죠.”

처음엔 아이와 함께 어린이극을 관람했다. 친정 부모님과 전당을 찾게 되면서부터는 경기도립국악단이나 경기도립무용단 공연까지 반경을 넓혔다. 하나둘 다양한 장르를 접하면서 문화예술이 전하는 각기 다른 감동을 맛봤고, 이제 그녀의 삶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즐거움이 됐다.

“오랫동안 아트플러스 회원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요? 결국 가족이죠. 공연 관람은 부모님과도, 또 아들딸과도 함께 할 수 있는 설레는 여가생활이니까요. 초대권이나 공연 할인 혜택도 제법 쓸쓸하고요(웃음).”

적극적인 관객으로 한발 더 가까이

전영희 씨에게 아트플러스 회원이란 직함은, 수동적인 관객에서 능동적인 관객으로의 기분 좋은 변화를 이끌었다. 이전까지는 거리에 붙은 플래카드나 포스터로 알게 된 공연에만 관심 가졌었다면, 회원이 된 이후에는 보다 다양한 장르, 깊이 있는 정보를 꾸준히 받다 보니 공연 선택의 폭도, 즐기는 자세도 달라졌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보고 싶은 공연이 더 많아졌어요. 또, 공연을 접하기 전에 <예술과 만남>이나 전당 홈페이지를 통해서 미리 작품을 살펴보는 습관도 생겼고요.”

다채로운 공연 가운데 그녀가 가장 선호하는 장르는 무용극과 국악극이라고. 특히 경기도립무용단 공연은 놓치지 않고 꼼꼼히 챙기려 한다.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 역시 경기도립무용단의 대표작 <태권무무 달하>를 꼽았다.

“<달하> 공연은 몇 번 봤음에도, 볼 때마다 경이로워요. 6월에도 전당 무대에 오르던데, 이번에 보는 <달하>는 또 어떤 느낌일지 기대됩니다.”

경기도문화의전당에 건네는 마음

경기도문화의전당을 향한 그녀의 관심은 애정 어린 조언으로 이어졌다. 몇 해 전만 해도 정원에 토피어리 작품을 비롯해 조경이 잘 꾸며져 있어 공연 전 아이들과 한 바퀴 둘러보는 즐거움이 있었다면, 지금은 이러한 볼거리가 줄어든 데다 초등학교를 위한 놀이시설도 마땅치 않아 다소 아쉽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아트플러스 유료회원존’의 체계적인 관리와 서비스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이곳이 안락하면서 머물고 싶은 공간으로 자리매김했으면 해요. 공연 보기 전, 회원존에 들르는 것이 빼놓을 수 없는 코스가 되게끔. 참, 초대권 좌석 자율권에 대해서도 의견 드리고 싶었는데… 지금은 무작위로 좌석이 배정되고 있지만, 초대권으로 이용 가능한 좌석 등급을 안내 받고 그 안에서 개인이 좌석을 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된다면 어떨까 합니다.”

기꺼이 애정어린 조언까지 건네준 그녀의 마음 속에서 오랜 친구이자 다정한 벗의 정겨움과 푸근함이 느껴진다.

S TO

A B O U T
C U L T U R E

R

56

예술, 수작을 걸다 I

대한민국 블랙리스트의 조상 : 윤이상

예술, 수작을 걸다 II

해외에서 명성을 얻고 있는
우리의 작곡가들

62

예술과 인문학

년버벌 퍼포먼스 발전과
<달하>의 '태권무'
무대화 결실

66

예술, 즐기기

열린 우체통

Y



대한민국 블랙리스트의 조상 : 윤이상

국가가 지정한 문화예술인 진상(真相) 고객

세계적인 음악가, 아시아와 유럽 문화의 가교,
아시아 유럽인 음악의 아버지. 윤이상 선생을 수식하는 표현들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수식어 '최초의 블랙리스트'가 있다.
지금이야 문화예술계를 검열하던 지난 정권에 대한 저항과 비판의식 때문인지
'블랙리스트' 등재가 많은 예술인에게 훈장처럼 여겨지지만,
윤이상 선생에게는 죽어서도 씻지 못할 오명이었다.

글 안성현 경기도문화의전당 공연기획팀

블랙리스트 [Black List]

검사가 필요한 위험인물들의 명단으로 수사 기관에서 위험인물의 동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마련한다.
‘감시 대상 명단’, ‘요주의자 명단’으로 이야기한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국정농단의 심각한 맥脈이었던 블랙리스트.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즉, 국가에서 은밀하게 지정한 진상 문화계 고객 명단이다. 명단에 포함된 예술인들에게는 국가가 나서서 지원을 끊고 검열과 불이익을 주었다고 한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예술인이 블랙리스트에 포함되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했다. 실제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는 많은 문화예술인이 블랙리스트에 포함되기를 희망했으며, 내가 만났던 한 예술인은 지금까지 자신의 행동과 행적을 반성한다며 블랙리스트에 넣어 달라고 울부짖었다.

그 예술인의 논리에 따르면 윤이상 선생(평화재단)이 지금의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등재돼 있었다는 것은 어쩌면 지금까지도 윤이상 선생이 미치는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윤이상 선생이 세상을 떠난 지 2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인터넷에는 윤이상 연관단어로 ‘최초의 블랙리스트 윤이상’이 눈에 띈다. 2017년 윤이상 선생 탄생 100주년을 앞두고 기념하기 위한 등재였는지 궁금하다. 사후 70년 저작권로 보장도 아니고 사후 70년 블랙리스트라니. 기가 찰 노릇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대화두인 빅데이터(문화계 블랙리스트)의 활용으로 빅피쳐를 그렸던 국가. 시쳇말로 공부도 열심히 했고 잘난 사람들, 좋은 대학 나온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 상상 이상의 놀라운 창조경제다. 블랙리스트 빅데이터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활용한 치졸한 창조경제 따위에 공들일 시간에 ‘e나라도움’ 시스템 효율화에 시간을 할애했으면 문화예술계 지원 사업에 ‘도움’을 주었을 텐데 안타깝다.

새삼 궁금한 것이 정·재계, 체육계 등 각종‘계’ 블랙리스트는 없었을까? 왜 하필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유독 집착했는지 생각해보면 문화가 세상을 바꾸고 예술이 변혁을 이끄는 위대한 힘임을 알고 있었나보다는 생각이 든다.

클래식에 문외한인 내가 생각해도 윤이상 선생은 세계적인 음악가이다. 공작과 음모가 판쳤던 그때 그 시절 동백림 사건에 연루되어 형을 살았던 비운의 음악가는 고향 땅을 밟을 기회를 번번이 놓치며 결국 타국에서 세상을 떠났다. 지금 살아 계셨다면 새로운 대통령이 자리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작을 반기셨을 것이다. 새로운 대통령의 문화예술 관련 공약에 ‘문화계 블랙리스트 청산’이 가장 처음 등장한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말이다.

달(Moon)이 차올랐다. 차오른 쟁반같이 둥근달이 우리의 마음을 비쳤으면 좋겠다. 각종 안 좋은 것들의 청산이 이뤄졌으면 좋겠다.

해외에서 명성을 얻고 있는 우리의 작곡가들



1901년 독일 음악가 프란츠 에케르트가 한반도에 발을 들인 이래, 100여 년 동안 불꽃 튀는 발전으로 지금은 우리나라의 많은 클래식 음악가가 해외 무대에 진출하고 있다. 여러 분야에서 고르게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데, 무대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연주자에 비해 새로운 음악을 만들고 객석에서 함께 듣는 작곡가들은 관심 있게 보지 않으면 지나치기 쉽다. 그래서 이번 지면에서는 한국인 작곡가들, 특히 해외에서 명성을 얻은 작곡가들을 중심으로 조명하고자 한다.

글 송주호 음악칼럼니스트



작곡가 박영희



작곡가 진은숙

가장 먼저 언급할 인물은 단연 윤이상^{1917~1995}이다. 불혹의 나이를 넘어 도전한 베를린 유학 중 1958년에 다름슈타트 하계현대음악강좌와 ISCM 등 여러 음악제에서 자신의 작품이 주목을 받아 독일에 정착하기로 결심했다. 윤이상은 전통악의 멜로디 라인을 연주기법으로 정리하고 여러 멜로디를 겹쳐서 음향의 움직임 만들었는데, 당시 유럽인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줬다. 그는 동양인으로서 매우 드물게 베를린 예술대학 정교수가 됐으며, 저명한 평론가 요제프 호이슬러가 선정한 '20세기 중요한 작곡가 56인'에 포함됐고, 1995년 자르브뤼켄 방송에서 선정한 '20세기 가장 중요한 작곡가 30인'에도 이름을 올릴 정도로 정상의 작곡가로 존경받았다. 그럼에도 한국인 제자를 많이 두지 못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윤이상에 이어 독일 음악계에서 가장 두각을 보인 한국 작곡가는 박영희¹⁹⁴⁵⁻다. 그녀는 1980년에 권위 있는 현대음악제인 도나우에싱겐 음악주간에서 발표한 관현악곡 〈소리〉¹⁹⁷⁹로 주목받고 윤이상을 잇는 작곡가로 자리매김했다. 1994년에

브레멘 예술대학의 작곡교수가 됐으며, '아틀리에 노이에 무지크'를 설립해 예술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다. 윤이상이 전통악 선율에서 출발했다면, 박영희는 민속음악의 리듬에 주목했다. 그래서 그녀의 음악에서는 음들의 독특한 울동이 감지되며, 다이내믹하고 드라마틱한 진행으로 많은 연주자가 즐겨 연주하고 있다. 독일음악위원회가 20세기 후반 독일음악을 총정리하며 제작한 앨범 〈Musik in Deutschland 1950~2000〉 시리즈에 박영희의 작품이 네 곡이나 수록됐다는 사실, 그리고 올해 1월 함부르크에서 개관된 엘프필하모니로부터 〈크고 높은 바다 위의 수평선〉²⁰¹⁶을 위촉받아 초연했다는 사실 등이 그녀의 명성을 대변해주고 있다.

2006년부터 서울시향 상임작곡가로 활동하면서 애호가들과 거리를 좁힌 진은숙¹⁹⁶¹⁻도 독일에서 리게티를 사사한 이후 독일을 거점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녀의 이름이 우리에게 뚜렷하게 각인된 것은 2004년에 〈바이올린 협주곡〉²⁰⁰¹으로 그로마이어 상을 받으면서부터였다. 그로마이어 상은 미국



루이빌 대학이 수여하는 상으로, 주로 잘 알려진 거장들이 지긋한 나이에 받는 반면, 진은숙은 젊은 나이에 수상한 소수 중 한 사람이라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최근에는 루체른 음악제 등 여러 국제 음악제에서 집중 조명을 받으면서 명성을 높이고 있다. 그녀는 한국 전통음악으로부터 영향을 받기보다는 이성적인 음 조직에 보다 무게를 두고 있으며, 음색을 다루는 남다른 솜씨를 가지고 있다. 저명한 음악학자인 폴 그리피스도 이렇게 정리한다. “특별한 문화적 함의를 전달하지 않는다. 바로 이것이 그녀가 갖는 장점 중 하나이다.”

류재준¹⁹⁷⁰⁻은 서울국제음악제를 맡으면서 국내 애호가에게 이름을 널리 알렸다. 폴란드에서 펜데레츠키를 사사한 그는 2015년에 폴란드의 권위 있는 글로리아 아티스 상을 받아 그의 입지를 확인시켰다. 그는 최근 〈첼로 협주곡 - 눈물〉²⁰¹⁰로 용산 참사의 아픔을 위로하며, 〈마림바 협주곡〉²⁰¹⁵ 2악장으로 세월호의 희생자를 추모하는 등 사회에 대한 반향을 낭만적인 언어로 기록하고 있어, 청중들로부터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2008년에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작곡부문에서 여성 최초이자 한국인 최초로 우승해 여러 매체에 집중 소개된 조은화¹⁹⁷³⁻를 기억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을 것 같다. 그녀는 2015년부터 베를린 한스 아이슬러 음대 객원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앞으로의 그녀의 활동에 더욱 기대된다. 동갑인 홍성지¹⁹⁷³⁻의 연주 소식은 끊이지 않는다. 영국에서 공부한 그녀는 30대를 보내면서 한국과 미국, 유럽 여러 나라의 작곡 콩쿠르를 휩쓸었으며, 미국과 유럽에서 고르게 작품이 연주되고 있다.

그리고 현대음악의 산실인 다름슈타트 하계음악강좌에서 크라니히슈타이너 작곡상을 받은 한국인이 있다. 한스 첸더의 마지막 제자인 김남국¹⁹⁷¹⁻으로, 2002년에 벌어진 이 일로 여러 언론으로부터 조명을 받았다. 귀국한 이후에도 한국과 독일을 오가며 여러 작품 활동을 했는데, 최근에 활동 소식이 들려오지 않아 안타깝다.

유럽뿐만 아니라 미주도 우리나라의 작곡가들이 많이 진출하는 땅이다. 이곳에서 ‘코리아’라는 태생적 존재를 품에 안고 명성을 얻은 작곡가들이 있는데, 알 킴¹⁹²⁰⁻¹⁹⁹⁸은 비교적 앞 세대에 속한다. 이민 2세인 그는 쉰베르크와 블로흐 등으로부터 배웠으며, 1967년에 하버드대학교 교수가 됐다. 교육자로서 영국 최고의 거장이었던 맥스웰 데이비스와 포스트미니멀리즘의 대부 존 애덤스를 가르쳤고, 최정상 소프라노인 던 업쇼가 〈슬픔이 잠드는 곳〉¹⁹⁸² 등 그의 노래를 자신의 레퍼토리로 삼았다. 그가 우리에게 알려진 것은 세상을 떠나고 10년이 지난 2008년에 대관령음악제에서 그의 〈린다에게〉¹⁹⁹³가 배우 윤여정의 낭독으로 연주돼 화제가 되면서였다. 그는 생전에 한국과 거의 교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Korean-American’으로 소개되는 작곡가로서 우리가 관심 가질 필요가 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산타 크루즈의 작곡과에도 한국인의 이름, 김희경¹⁹⁵⁴⁻을 찾아볼 수 있다. UC 버클리 유학 시절 그녀의 스승 중에는 스펙트럼 음악의 거장 제라르 그리제이가 포함돼 있으며, 1996년에 퍼

시픽 림 음악제를 설립해 웨스트코스트의 현대음악을 주도하고 있다. 국악기와 서양악기를 위한 앙상블 곡들도 현지에서 발표하고 있다.

세계의 문화가 모이는 곳, 뉴욕에서 김인현¹⁹⁷⁹⁻의 활동은 결코 가볍지 않다. 그녀는 맨해튼에서 폴리처상 수상자인 줄리아 울프를 사사하고, 현대음악을 뉴욕시민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 현대음악의 새로운 길을 제시한 '뱅온어캔'의 위촉작곡가로 활동했다. 그리고 뉴욕시 산하 음악단체 'Ear To Mind'를 설립하고 뉴욕예술재단 작곡상 등을 받는 등 뉴욕에서 눈에 띄는 활동을 보여줬다. 그녀의 음악은 역동적인 리듬으로 생명의 원기를 샘솟게 하는 에너지틱한 사운드를 들려준다. 최근에 'Ear To Mind Korea'를 설립하고 한국판 뱅온어캔을 기획하고 있으며, 지난 5월에 현대음악앙상블 '소리'와 함께 DJ와 앙상블을 위한 〈VME〉2017를 발표해 화제가 됐다.

이외에도 많은 작곡가들이 한국인의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지면관계상 더 이상 언급할 수 없다는 것이 아쉽다. 그래도 젊은 음악가들을 지나칠 수는 없다. 여러 젊은 음악가가 세계무대에서 활약하며 다양한 소식을 전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전현석¹⁹⁷⁸⁻은 이탈리아 150주년 국제 작곡 콩쿠르에서, 이재문¹⁹⁸²⁻은 쾰른 소피아 작곡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했으며, 신동훈¹⁹⁸³⁻은 로열 필하모닉 소사이어티 작곡상을 받았다. 그리고 올해 최한별¹⁹⁸²⁻이 바젤 작곡 콩쿠르에 입상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들의 음악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닮은 세계이며, 또한 미래를 살아갈 다음 세대가 접하게 될 세계이기도 하다. 우리가 명성을 얻은 유명 작곡가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들의 음악에도 못지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이다.

함께 읽으면 좋은 책

〈현대음악사〉

폴 그리피스 |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1990

드뷔시로부터 볼레즈에 이르는 20세기 음악가들의 생활과 작품활동이 담겼다. 영국의 저명한 음악 평론가이자 저술가인 저자는 책에서 수많은 음악가의 생활과 작품 활동에 관한 정보를 기보와 연주상황 사진 등으로 이해하기 쉽게 분류했다.

〈20세기 음악〉

오희숙 | 심설당 | 2004

역사, 미학, 시학이라는 세 가지 시각에서 바라보는 책으로, 1권 〈역사〉에서는 음악의 양식적 측면에서 시대적 흐름을 조망하였고, 2권 〈미학〉에서는 미학적 시각에서 5가지 개념으로 접근했다.

66

국가와 국민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
인물자산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중요

66

탁무권 윤이상평화재단 이사장

윤이상 선생은 서양문화의 흐름 안에 동양사상을 담아낸 세계적인 작곡가였지만, 정치적인 이유로 그의 음악을 오랫동안 국내에서 접하기 힘들었다.

기술력, 경제력, 군사력 등 국가 자산의 평가 기준이 여럿 있으나, 인물자산 역시 중요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물자산 중 국제적으로 알릴 만한 인물이 많지 않아 아쉽다.

국가의 격을 높이고 부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인물자산이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다. 그다지 부유하지 않은 나라인 폴란드의 경우, 국가를 떠올리면 즉시 떠오르는 예술가가 바로 쇼팽이다. 폴란드의 국격은 쇼팽을 통해 높아졌다. 예술가를 높이는 것이 국가의 어떤 위대한 사상을 높이는 것 못지않게 소중한 가치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한다.

님버벌 퍼포먼스 발전과 〈달하〉의 ‘태권무’ 무대화 결실

글 김경애 춤 평론가(월간 〈댄스포럼〉 발행인)



우리나라 공연계에 '넌버벌 퍼포먼스(Non-verbal Performance)'가 하나의 장르로 자리를 잡았다. '넌버벌'은 말(언어)이 없다는 뜻으로 대사를 주로 하는 연극, 즉 정통 스타니슬랍스키 훈련법의 사실주의 연극과 대치점에 있다. 넌버벌 퍼포먼스의 중심에는 몸을 위주로 하는 예술인 춤이 있다. 비언어 커뮤니케이션 수단은 상징과 표현 몸짓, 소리, 영상, 디지털의 과학적인 모든 것을 포함하며, 따라서 융복합이라는 용어도 동반한다. 도발적이고 폭발적인 리듬, 마임, 춤과 함께 일상생활의 모든 주변 물품은 악기화 될 수 있다. 이런 광범위한 표현기법을 포함하는 넌버벌 퍼포먼스는 한국인 특유의 신명과 어울릴 수 있는 가장 대중적인 공연예술 형태의 한 장르가 됐다.

비언어
상징
표현
몸
소
영
디
과
리
마
텔
적
학
드
임



〈난타〉

넌버벌 퍼포먼스로는 대사가 없어 언어 방벽이 없으며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탭댄스를 소재로 한 '탭 덕스(Tap Dogs)', 소도구로 하모니와 리듬을 즐기게 한 '스텀프 스톰프(Stomp)'를 우선 꼽는다. 우리나라에 이 장르를 본격적으로 정착시킨 작품은 〈난타〉라고 지칭된다. 1997년에 초연된 〈난타〉는 한국 전통가락인 시물놀이 리듬을 소재로 주방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코믹하게 그린 한국 최초의 이색 무대였다. 칼과 도마, 주방기구가 악기로 승화돼 화려하게 연주. 한국의 신명을 즐기게 하며 공연예술시장을 강타했다. 에든버러 페스티벌, 뉴욕 브로드웨이 등 국외에서도 크게 히트했다. 난타전용극장까지 설립해 대중적 성공신화를 이뤘다.

〈난타〉 성공 후 비슷한 류의 공연이 빠르게 확산돼 〈페인터즈 히어로〉, 〈비밥〉, 〈사랑하면 춤을 춰라〉, 〈점프〉 등 이른바 5대 년별 퍼포먼스라는 커다란 공연시장을 만들게 됐다. 〈페인터즈 히어로〉는 3D 프로젝션 매핑, 신나는 춤을 중심으로 그림이 그려지는 과정을 보여주는 코미디 신개념 드로잉 아트 퍼포먼스다. 미술과 퍼포먼스가 융합돼 대중적 재미를 끌어냈다. 〈비밥〉은 한국 대표 음식인 비빔밥에서 착안한 믹스&모니 콘셉트의 공연이다. 우리나라 음식문화의 특색을 코미디 상황극으로 설정해 심장박동을 뛴 비트, 기교적인 비보잉, 마살아츠까지 넣어 화려한 볼거리를 만들어냈다.

〈사랑하면 춤을 춰라〉는 춤을 소재로 한 댄스 뮤지컬이다. 시대를 초월하는 사랑의 이야기 속에 힙합, 현대무용, 브레이크 댄스를 유쾌하게 배합했다. 〈점프〉는 단순한 코미디 드라마에 고수들의 아크로바틱한 무술을 결합시켰다. 무술 유단자 집에 도둑이 드는 해프닝 속에 발차기와 공중몸회전 등 묘기가 펼쳐진다.

또 태권도를 모태로 한 〈모던태권도 키스KICKs〉도 새로운 년별 퍼포먼스로 이름을 올렸다. 홀로그램을 이용한 화려한 태권도 퍼포먼스에 아이와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도록 드라마를 가져왔다. 가상현실적인 무대, 태권도와 영상, 게임적인 요소, 댄스, 드라마의 스토리텔링이 함께 어우러진 작품이다.



〈비밥〉

태권도를 ‘태권무무’로

태권도는 올림픽 종목으로 채택되며 무술 카리스마를 얻었다. 발차기, 격파 등의 고난도 기술은 아크로바틱 요소로 공연 예술 한가운데로 들어왔다. 10년 전 조흥동 선생이 이끄는 경기도립무용단은 〈달하〉라는 작품을 통해 이 태권도의 곡예를 볼거리의 과정으로 무대에 들였다. 격조 있는 춤의 서정성을 베이스로 한 인간의 꿈을 그린 〈달하〉는 대중적인 인기 속에 국내외에서 수차례 공연하면서 경기도립무용단의 대표 레퍼토리로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초연 10주년을 맞이해 지난 4월 20일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막을 올렸다. ‘태권무무跆拳道舞’라는 접두어가 붙었듯이 태권도에 리듬과 멜로디를 부여해 무용화한 결과가 돋보였다. 〈달하〉가 무대에 올라간 10년 동안 대학의 태권도학과에서 안무가를 초빙해 교수로 임용하는 가시적인 흐름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이는 꼭 〈달하〉만의 업적은 아니겠으나 태권도의 무용성舞蹈性을 계발해 연희로서의 가치도 만들어 내려는 동기를 부여한 것은 사실이다.

‘태권무무’는 무용에서는 새로운 춤을 찾는 자료의 원형을, 체육에서는 무용의 기술을 응용하는 등 보다 아름다운 연기를 개척해가는 두 분야에 크게 공헌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10주년 공연에서는 실제 태권도 묘기가 펼쳐지는 ‘태권무무’ 장면이 보다 더 무용적으로 시각화됐다. 그동안 많은 무대를 통해 정선되고 연구된 듯 아크로바틱한 움직임들에 부드러움과 강함이 적절히 배분됐다. 음악을 수용하는 신체의 풀고 맺음에서 ‘태권도’를 ‘태권무’로 비꾼 조흥동, 김정학 등 제작진이 오랜 기간 쏟은 노력이 증명된다.

송고하고 육중한 무대가 전하는 감동

이번 10주년 무대에는 과거 경기도립무용단 단원으로 활약했던 이동준을 객원으로 영입해 주역을 맡겼다. 그의 카리스마와 이나리의 부드러움을 함께 부각시키면서 극의 정점을 이룬다. 이동준은 외모와 탁월한 춤 기술로 무대를 장악한다. 〈달하〉는 전쟁을 주제로 남성 군무진이 등장하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역동성이 강화될 수밖에 없는 작품이다. 또 계곡의 원시성을 강조한 무대미술품의 육중함이 시각적으로 압도하고 총 10개의 큰 장면이 빠르게 전개돼 관객은 볼거리에서 빠져들게 된다. 그럼에도 그 중심을 잡고 가는 이동준의 솔로와 군무를 이끌어가는 리더십은 상당한 내공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었다. 특히 장검을 든 용사들을 동반한 군무진 속의 이동준은 무용수 개인의 위력을 보여줬다.

이나리와 2인무는 작품의 중심에 있다. 이 작품은 천지개벽부터 인류사를 다루지만 개인 삶의 중요함을 부각한다. 프레이저의 〈황금가지〉 유형의 문화인류학적인 접근이다. 문명이 이루어지기까지 인류는 주술과 종교가 중심에 있었고, 국가가 생겼고, 전쟁을 거듭하는 태양의 세계가 있었다. 작품명이 〈달하〉이듯이 태양의 세계 그 뒤의 인간 내면을 강조한다. 정적情的인 세계의 상징인 ‘달’을 앞에 놓았다.

〈달하〉가 추구하는 미학은 ‘송고미崇高美’에 해당된다. 크고 강한 것에서 찾는 아름다움이다. 깊은 계곡이 구체화돼 바위 산처럼 장치된 미술을 배경으로 두 마리 거대한 용의 트림 등 웅장한 그림들이 빠르게 바뀌며 움직이는 속에 관객은 무대만이 줄 수 있는 신기한 볼거리에서 빠져들 수 있다. 〈달하〉가 대중적인 무대로 성공한 요인이기도 하다. 사람들은 크고 강



〈달하〉

‘태권무무’는 무용에서는 새로운 춤을 찾는 자료의 원형을, 체육에서는 무용의 기술을 응용하는 등 보다 아름다운 연기를 개척해가는 두 분야에 크게 공헌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 것에 감동을 받는다. 그리고 자신이 따라갈 수 없는 절대 묘기에도 감동받게 된다. 그러면서 고적孤寂한 장면을 휴지休止처럼 넣은 것도 극적 효과를 가중시킨다. 대금 연주를 주제로 한 만파식적이나 일월日月의 만남 등 솔로와 남녀 2인무를 잘 응용한다. 송고미를 세우면서 미시적인 미를 탐한다. 남녀의 사랑으로 전달되는 인류의 삶이다. 궁극적으로 미르의 꿈은 개인의 정서,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준다. 결미의 여성군무는 김정학 안무 특유의 섬세함으로 앞의 남성춤과 대비된다.

한 단체가 대표 레퍼토리를 갖는다는 것은 당연하면서도 그리 쉽지는 않다. 단체가 안정돼 있어야 가능하다. 〈달하〉는 특히 전국의 시도립 무용단 중 드문 사례로, 경기도립무용단의 지구력을 확인한다. 이는 조흥동 예술감독에 이은 김정학 감독의 춤의 예술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잡으려는 집념으로 가능한 것이었다.



〈예술과 만남〉이 독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이번호 〈예술과 만남〉에서 가장 좋았던 기사와 건의하고 싶은 점 등
자유로운 의견을 독자 엽서 또는 이메일(magazine@ggac.or.kr)을 통해 전해주세요.
추첨을 통해 4분께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여지원 씨의 인터뷰에서 '역전의 드라마'라는 글귀가 눈에 띄었습니다. 무명의 음대생이 세계무대에 원하는 소프라노 가수가 된다는 게 사실 우리 사회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 그런 드라마 같은 스토리를 가진 분이 국내 무대에 선다고 하니 관심을 두게 되더군요. 여지원 씨가 유학을 떠나기 전 목표로 삼은 것이 톨클래스의 소프라노가 되겠다거나 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진짜 목소리를 찾고 싶었다는 부분도 감명 깊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것, 모든 일의 기본이니까요.
김현권(용인시 기흥구)



예술에 다양한 가능성을 접목해 봄으로써 외연 확장의 길을 모색하는 것을 마치 수작을 건다?라고 재미있게 봤던 표현이어서 인상적이었습니다. 극 연출과 음악이 병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아울러 모던 오페라의 장을 연 것은 필자의 '수작'이 성공한 셈이지요. 발레를 접목해 그랜드 오페라를 극대화 한 부분도 역시 눈에 띄었습니다. 또한 이탈리아가 많은 외침을 이기고 독립국가로서 우뚝 서게 된 자부심을 한껏 강조한 부분 역시 많은 공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최세현(수원시 장안구)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음악가가 있었다는 사실이 조금 놀라웠습니다. 시대가 만든 비극적인 비운의 음악가였지만, 망명해서나마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계속 음악활동을 했다는 점은 감사한 일이에요. 비록 귀향이 좌절되고 미국땅에서 돌아가셨지만, 우리나라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잃지 않고 음악 활동을 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윤이상의 음악을 찾아 들어가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원경(화성시 병점동)



평소 우리 소리를 배워보고 싶어서 경기도국악당 서도민요 강좌 기사를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경기도 하면 경기민요만 있는 줄 알았는데 서도민요란 장르도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QR코드 동영상도 보니 그동안 들었던 경기민요보다 확실히 더욱 구성지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기사 말미의 인터뷰 내용처럼 많은 분이 우리 소리에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즐기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김은매(성남시 수정구)

회원 혜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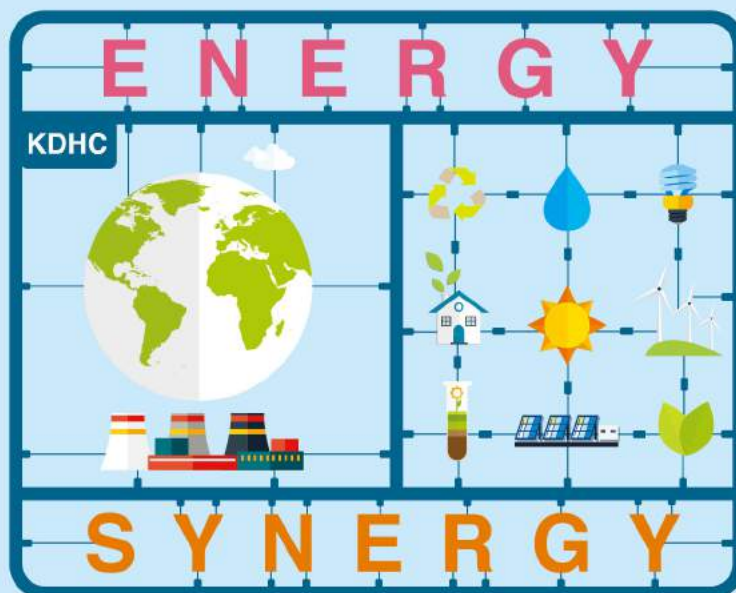
 공연·전시 티켓 구매 시 할인 일부대관 공연·전시 제외	 예매 수수료 면제 전화 및 전당 홈페이지 티켓 구매 시	 취소 수수료 면제 전당 기획·예술단 공연 *온라인회원 제외	 경기도립예술단 정기·기획공연 초대 *골드 연 4매 / 일반 연 2매	 강좌 수강료 할인 교육프로그램 '예술가 꿈' 수강료 5% 할인 *온라인회원 제외
 식음료 제휴 서비스 카페 셀란(CELLAN) 음료쿠폰 증정 *골드 연 4매 / 일반 연 2매	 〈예술과 만남〉우편 발송 *온라인회원 제외	 공연 프로그램 북 증정 기획공연·예술단공연 1회 1권 *온라인회원 제외	 주차요금 면제 공연·전시 관람 및 행사 참석 시 무료주차 *온라인회원 제외	 문자(SMS, LMS), 이메일 뉴스레터 발송

가입 안내

- 연회비 : 골드회원 5만원 / 일반회원 3만원 / 온라인회원 1만원
- 방문 가입 : 경기도문화의전당 미소도움관 내 인포샵 또는 고객센터비스트 방문
웹 회원 가입 : 전당 홈페이지 웹 회원 가입/로그인 후 고객센터 > 아트플러스 유료회원 안내 > 회원가입
- 가입 후 10일 이내 회원카드 등기 발송(온라인회원 제외)

문의

- 전화 031-230-3242
- 팩스 031-230-3275
- 이메일 artplus@ggac.or.kr



에너지가 될까요? 시너지가 될까요?

누군가 에너지 그 자체만을 말할 때
우리는 지구를 보듬는 에너지를 생각합니다
누군가 에너지의 효율성만을 강조할 때
우리는 에너지가 만드는 따뜻한 세상에 주목합니다
누군가 미래의 에너지만을 얘기할 때
우리는 에너지가 만들 더 큰 시너지를 계획합니다

에너지를 만들지 시너지를 만들지는
결국, 우리 손에 달렸습니다

NEWS

2017 JUNE + JULY | VOL. 126

피아니스트 임동혁의 재능기여로
경기도문화의전당
그랜드 피아노 교체



01

경기도문화의전당이 새로운 그랜드 피아노를 구입했다. 연주자들에게 한층 높아진 연주환경을 제공하고, 관객에게는 우수한 성능의 악기가 내뿜는 유례없는 사운드를 감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이번 피아노 구입을 위해 독일 현지에서 체류 중인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임동혁이 아홉 대의 피아노를 직접 타건하고 소리를 감별해 고르는 등 경기도문화의전당 피아노 구입에 재능을 기여하며 일조했다. 구입한 피아노는 스타인웨이의사의 D타입 풀사이즈 그랜드 피아노이다. 6월 25일, 임동혁은 자신이 직접 고른 새 그랜드 피아노로 경기도문화의전당 대극장에서 〈임동혁 피아노 리사이틀〉을 연다.

내가 만드는 전래동화 이야기
〈마법처럼〉



02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온몸으로 느끼는 어린이 체험전이 진행됐다. 어린이들은 전래동화 〈콩쥐팍쥐〉 속 새엄마의 미션을 수행하고,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다리를 이어주며, 마음껏 뛰어놀면서 〈토끼와 자라〉의 보물을 찾는 체험을 하는 등 전래동화 속 주인공이 됐다. '콩쥐팍쥐' 방에서는 색색의 클레이 놀이와 쿠키 만들기를 통해 집중력을 기르고, '견우와 직녀' 방에서는 밤하늘의 은하수처럼 빛과 어둠의 상상 놀이터가 펼쳐졌으며, '토끼와 자라' 방에서는 모래를 이용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아이들은 스트레스를 해소했다.

맛있는 콘서트
〈브런치 콘서트 with 김종진〉



03

브런치(Brunch)와 음악이 결합어진 공연, 브런치 콘서트가 열렸다. 이번 브런치 콘서트는 1년간 총 네 번, 봄·여름·가을·겨울의 콘셉트로 이어진다. 밴드 '봄여름가을겨울'의 김종진이 진행과 연주를 맡으며 계절마다 게스트가 출연하여 무대를 가득 채운다. 봄 콘서트에는 가수 김광진이 출연해 서정적인 무대와 따뜻한 이야기를 전했다. 관객들은 맛있는 브런치와 함께 콘서트를 즐기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어지는 여름 콘서트에서는 가수 한영애가 게스트로 출연한다.

06+07

GYEONGGI ARTS CENTER

무료 책 교환 '도깨비 책방',
경기도문화의전당에서 열린다



04

4월 26일부터 29일까지, 경기도문화의전당에서 도깨비 책방이 열렸다. 이번 도깨비 책방에는 2,500여 명의 사람들이 몰려 책을 교환했다. 도깨비 책방은 공연, 전시, 영화 유료 관람권 및 지역 서점 도서 구입 영수증을 도서로 무료 교환해주는 행사다. 특히 '문화가 있는 날' 참여 공연, 전시 시설에서 3만 원 이상 결제했거나 전체 영수증 합산 금액이 5만 원 이상인 경우, 또는 문화융성 카드로 결제한 우수 문화예술 소비자에게 신규 구입 도서와 기존 도서를 모두 받아갈 수 있는 1+1 혜택이 제공됐다.

경기도립국악단
성악악장 최근순 선생,
경기향토소리 예능 보유자 선정



05

용인시가 지역에 전래되는 무형문화재 '경기향토소리'를 용인시 향토민속 제2호로 10일 신규 지정 고시했다. 예능 보유자는 경기도립국악단 성악악장 최근순 선생이다. 경기향토소리는 용인지역에 전승되고 있는 <창부타령>, <풍년가>, <사설난봉가> 등 민요 30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용인 백암 <상여소리> 등 경기도 속민요와 <산이제소리> 등이 포함돼 있다. 최근순 선생은 어려서부터 할머니에게 <산이제소리>, <경기도당굿>, <안성시나위> 등을 전수하고, 경기도당굿 보유자故오수복 선생에게 <제석거리>를 전수했다.

경기도 산하기관 상반기 통합공채,
경기도문화의전당 경쟁률 132:1



06

총 81명을 선발하는 경기도 15개 산하기관 상반기 통합공채에 총 4,100명이 지원했으며 평균 51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 중 경기도문화의전당은 132대 1의 높은 경쟁률로 접수를 마감했다. 경기도 통합공채는 투명한 채용을 하는 공공기관이라는 이미지를 고취하며, 경쟁률 상승으로 인해 우수 인재 채용 가능성을 높이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다. 5월 13일 필기시험 이후 기관별 면접을 통해 6월 말, 최종 합격자가 선정된다.

6 June

① 대극장 ② 소극장 ③ 빛나는갤러리 ④ 소담한갤러리 ⑤ 경기도국악당 흥겨운극장 ⑥ 꿈꾸는컨벤션센터 ⑦ 섀론무대 ⑧ 신나는 야외극장 ⑨ 외부공연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② 기획전시 마법처럼	2 ② 기획전시 마법처럼 ② [의왕시아름채노인복지관] 경기도립국악단 순회공연 경기소리를 찾아서	3 ② 기획전시 마법처럼 ① 경기필하모닉 2017 경기필 암솔루트 시리즈 II 성시연의 브루크너 7번 in 수원 ② [봉선사 암 특설 야외무대] 경기도립무용단 초청공연 2017년 광릉 숲 축제 (달하) 공연
4	5	6	7	8	9 ② [판교테크노밸리 광장] 경기도립국악단 문화나눔 31	10 ② [파주 교하도서관] 경기도립국악단 문화나눔 31
11	12 ② [소만초등학교] 경기도립국악단 문화나눔 31 맹진사댁 경사	13 ② [고양아람누리 아람음악당] 경기필하모닉 초청공연 고양시립합창단 베르디 레퀴엠	14 ② [와우리 장애인주간 보호센터] 팝스앙상블 문화나눔 31	15 ② [소만초등학교] 경기도립국악단 문화나눔 31 맹진사댁 경사 ② 아시아 클래식 시리즈 3 이경선 선형훈 장중진 챔버 콘서트 ② [경기도 이천 특전사] 경기필하모닉 순회공연	16 ② [대한노인회 남양주시지회] 경기도립국악단 문화나눔 31 ② [포은아트홀] 경기도립국악단 문화나눔 31 용인예술큰잔치 ① 경기도립무용단 <태권무무 달하> 탄생 10주년 기념 공연 ② [화성행궁] 경기도립국악단 초청공연 화성행궁 상설한마당	17 ① 경기도립무용단 <태권무무 달하> 탄생 10주년 기념 공연 ② [솔가람아트홀] 팝스앙상블 문화나눔 31 ② [일산 호수공원 야외무대] 경기필하모닉 순회공연 고양시민을 위한 행복 나눔 콘서트 ② [화성행궁] 경기도립국악단 초청공연 화성행궁 상설한마당
18	19	20	21 ② [부천상록학교] 팝스앙상블 문화나눔 31	22 ② 브런치 콘서트 with 김중진 여름	23	24 ① 경기필하모닉 시니어콘서트 남자, 여자 그리고 부부
25 ① 임동혁 피아노 리사이틀 The First Touch	26 ② [안산 푸른동산보호 작업장] 경기도립무용단 문화나눔 31	27 ② [연천 제6보병사단 수색대대] 경기도립무용단 문화나눔 31 ② [화양연화 시즌2] 여름의 실수	28 ② [용인 55사단] 경기필하모닉 순회공연	29	30 ③ 경기도립국악단 후원의 밤 ① 뮤지컬 영웅	

아트플러스회원 초대 가능 공연 경기도립하모닉 암솔루트 시리즈 II <성시연의 브루크너 7번>수원, 서울, 경기도립무용단 <태권무무 달하> 10주년 기념공연
아트플러스회원 할인 가능 공연 기획전시 <마법처럼>, 암솔루트 시리즈 II <성시연의 브루크너 7번>수원, 서울, 아시아 클래식 시리즈 3 <이경선 선형훈 장중진 챔버 콘서트>, 경기도립무용단 <태권무무 달하> 10주년 기념공연, 브런치 콘서트 with 김중진 <여름>, 임동혁 피아노 리사이틀 <The First Touch>, 화양연화 시즌2 <여름의 실수>, 뮤지컬 <영웅>

7 July

대극장
 소극장
 빛나는갤러리
 소담한갤러리
 경기도국악당 흥겨운극장
 꿈꾸는컨벤션센터
 섀클무대
 신나는 아외극장
 외부공연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뮤지컬 영웅
2 뮤지컬 영웅 [부천가동교회] 경기필하모닉 순회공연 부천시민을 위한 행복나눔 콘서트	3 경기필연습실 경기필하모닉 2017 경기필 지휘/ 작곡 마스터클래스	4 경기필연습실 경기필하모닉 2017 경기필 지휘/ 작곡 마스터클래스	5 경기필연습실 경기필하모닉 2017 경기필 지휘/ 작곡 마스터클래스	6 경기필연습실 경기필하모닉 2017 경기필 지휘/ 작곡 마스터클래스 경기필하모닉 2017 경기필 마스터클래스 파이널 콘서트	7 경기도립극단 윤이상:상처 입은 용 [26사단 포병여단] 팝스앙상블 문화나눔 31	8 경기도립극단 윤이상:상처 입은 용
9 경기도립극단 윤이상:상처 입은 용	10	11	12	13	14 [의왕 아름채 노인대 학] 경기도립극단 문화나눔 31 맹진사댁 경사 [중원초등학교] 경기필하모닉 문화나눔 31	15 경기도립국악단 콩데렐라 전시 열령동땅 색깔공장
16 전시 열령동땅 색깔공장	17 전시 열령동땅 색깔공장	18 전시 열령동땅 색깔공장	19 전시 열령동땅 색깔공장	20 전시 열령동땅 색깔공장	21 전시 열령동땅 색깔공장	22 전시 열령동땅 색깔공장 경기도립무용단 기획공연 판
23 전시 열령동땅 색깔공장	24 전시 열령동땅 색깔공장	25 전시 열령동땅 색깔공장	26 전시 열령동땅 색깔공장	27 전시 열령동땅 색깔공장	28 전시 열령동땅 색깔공장	29 전시 열령동땅 색깔공장
30 전시 열령동땅 색깔공장	31 전시 열령동땅 색깔공장					

아트플러스회원 초대 가능 공연 경기도립무용단 <판>

아트플러스회원 할인 가능 공연 경기도립무용단 <판>, 뮤지컬 <영웅>



www.ggac.or.kr



twitter.com/iloveggac



www.facebook.com/loveggac



blog.naver.com/ggarts